

성심과 함께 하는

산길


27

2016 October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지상교회의 존재목적에 따라

“섬김과 나눔이 있는 행복한 공동체”



발행인 : 담임목사 장호철
지도장로 : 심항기 장로
편집위원장 : 한준명 안수집사
편집부장 : 안영화 집사
편집부 : 한준명, 이동희
디자인 : 안영화, 최영은
취재부 : 최영은, 문진희, 이상호, 임용석
사진부 : 조광필, 이수영
객원위원 : 이서권, 고은정, 송춘희

CONTENTS



[담임목사님 권두언]

행복한 삶의 출발, 복음 / 2page

[크리스천 교양]

존 비비어의 《Good or God?》 / 6page

이스라엘을 살린 에스더 왕비 / 10page

“진짜 엄마를 찾아서” / 14page

『하나님은 외아들을』 (294장/통 416장) / 16page

두 아들을 출세(?)시킨 살로메 / 18page



[교회학교 사역]

가정의 달, 사랑은 편지를 타고 / 22page

축복의 땅(영아부) 성경학교 / 24page

밀알의 땅(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26page

약속의 땅 1부(유년부) 여름성경학교 / 30page

초중고 연합여름수련회 / 32page

청년공동체 여름수련회 / 46page



[국내 단기선교]

‘섬김’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요 / 51page

“네! 저 국내선교 가요!” / 55page

“행복한 단기선교, 내년에는 같이 가요” / 59page

[사잇길 쉼터]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 62page

여전도회 이모저모 / 66page



[신앙의 선배에게 듣는다]

나와 신앙,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 68page

나와 교회, 면목제일교회부터 성심교회와 함께 성장한

믿음의 계보 / 72page

[Photo & Photo]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게 하소서 / 77page

[현장취재]

2016년도 상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자 / 78page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 80page

[건강]

척추 질환의 근본적 치료와 예방 방법은 없는가? II / 82page

[즐거운 성경 퍼즐] / 84page



행복한 삶의 출발, 복음



담임목사 장호철

지난 성심과 함께하는 삶의 권두언에서 저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소원(구원에 대한 뜻과 계획)을 잘 알고, 그로 인하여 영원(항상 지금)한 행복을 고백하는 내(우리)가 행복한 사람임을 나누었습니다.(권두언 2016년 3월호 참조)

이번 권두언에서 저는 행복한 삶의 출발이 복음에 있음을 확신하면서 사도행전 2장의 말씀을 중심으로 복음이란 무엇입니까?에 대하여 나누고자 합니다.



복음이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2장을 중심으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이후 첫 번째 오순절에 **성령님의 강림**으로 인하여 **복음은 나의 행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1.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인하여 나타난 세 가지 영적 현상과 그 결과로 인하여 복음이 행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4, 6, 11, 14)

- 모든 제자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복음을 확실히 깨달아 강하고 담대한 **그리스도의 증인**이 됨(4, 14)
- 모든 제자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통하여 하나님의 큰일을 증언하게 됨(4, 11)
- 모든 제자가 다른 언어들로 의사소통하여 하나님의 큰 일을 정확하게 전달하게 됨(4, 6)

2. 요엘 선지자 예언의 성취인 성령 충만으로 인하여 복음이 행복의 출발점이 되었습니다.(16-21)

- 성령이 모든 그리스도인(자녀, 젊은이, 늙은이, 남종, 여종)에게 차별 없이 충만히 주어짐
- 성령으로 충만하면 기사와 징조를 보고 해석하며, 영원한 날(재림) 이전의 상황을 해석하여 재림과 심판을 준비하게 됨

3. 삼위일체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22-47)

1) 성부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22-24)

- **하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예수님이 나(우리)의 구원자이심을 증언하심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심
-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의 생명을 위하여 예수님을 사망의 고통에서 살리심



2) 성자 하나님(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23, 31-33, 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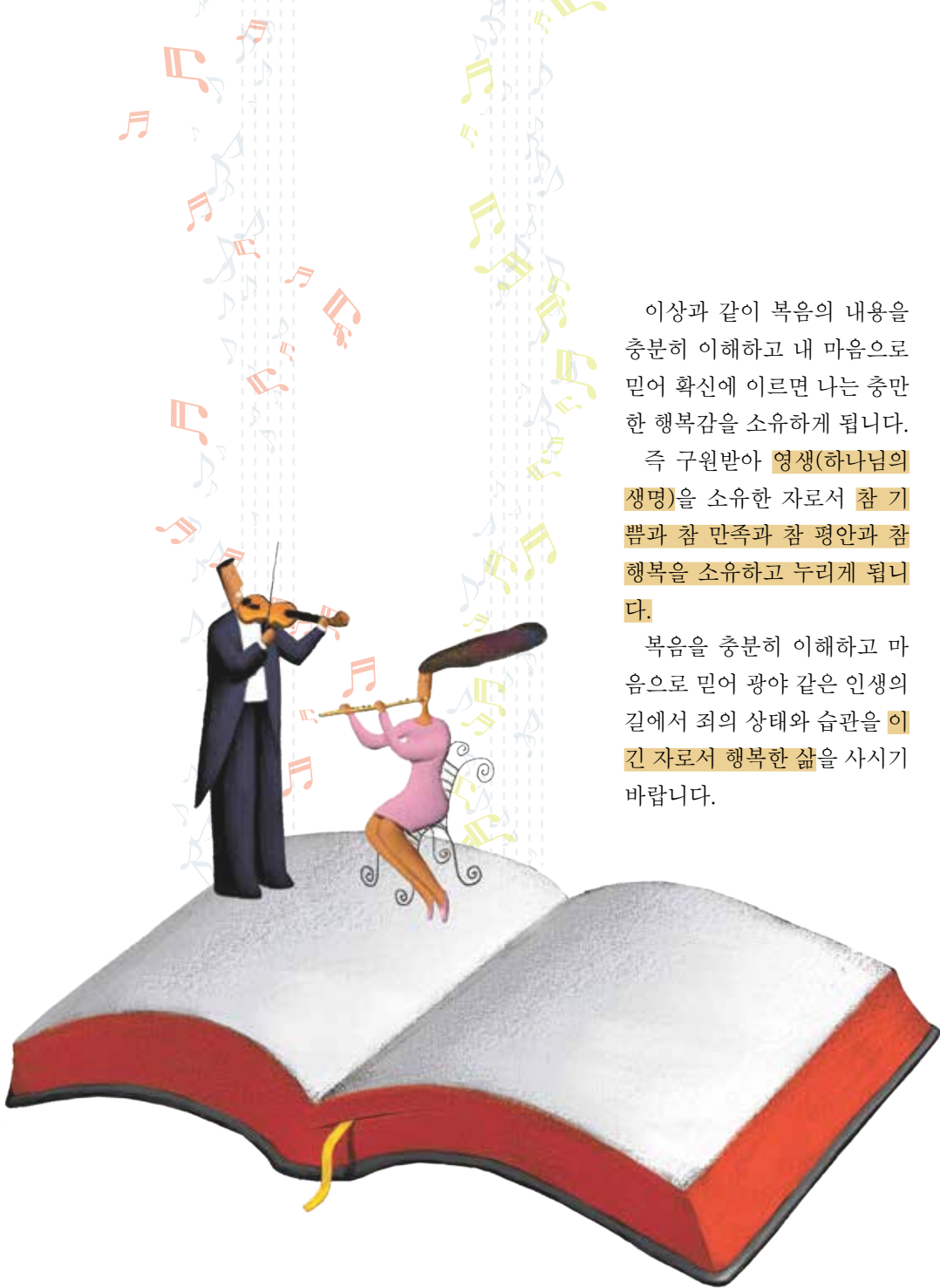
- 예수님은 나의 죄 사함을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당하심
- 예수님은 나의 영생을 위하여 사망의 고통에서 부활하심
- 예수님은 나의 구원과 구원 완성을 위하여 보혜사(보호, 인도, 책임지시는) 성령님을 하나님께 받아서 나에게 부어 주심
- 예수님은 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심

3) 성령 하나님의 복음이란 무엇입니까?(37-42)

- 성령님은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찢어 회개하게 하심
- 성령님은 회개하여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는 구원의 과정을 인도하심
- 성령님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모든 자들의 구원 과정을 인도하심
- 성령님은 복음의 가르침, 예수님을 중심으로 성도간의 교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성도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능력 주심

4. 교회가 전할 복음이란 무엇입니까?(42-47)

- 교회는 가르치고 교제하고 기도하기에 힘쓰도록 지도함
- 교회는 기사와 표적으로 성도의 성도됨을 지도함
- 교회는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필요에 따라 나눠 주도록 지도함
- 교회는 마음을 모아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예수님을 중심으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도록 지도함
- 교회는 온 백성에게 칭송 받으며,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보내주시는 구원 받는 백성을 섬기며 지도함



이상과 같이 복음의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내 마음으로 믿어 확신에 이르면 나는 충분한 행복감을 소유하게 됩니다.

즉 구원받아 **영생(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참 기쁨과 참 만족과 참 평안과 참 행복을 소유하고 누리게 됩니다.**

복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마음으로 믿어 광야 같은 인생의 길에서 죄의 상태와 습관을 **이긴 자로서 행복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존 비비어의 《Good or God?》 (무엇이 선인가?)

객원위원 이서권 장로



저자 존 비비어(John Bevere)는 1979년 미국 퍼듀 대학교에서 기계공학을 전공할 당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다. 학창시절 그의 계획은 하버드대학교에 진학하여 MBA를 하고 멋진 여자와 결혼을 하여 좋은 기업에 취직하는 것이었으나, 하나님의 계획은 달랐다. 하나님은 그를 ‘하나님의 사역자’로 부르셨고 그는 순종했다. 그리고 지금까지 담대함과 열정을 가지고 타협 없는 진리를 선포하고 가르치고 있다. 강연을 통해 그리스도인의 영적 성장을 추구하는 탁월한 강사이자 사랑받는 베스트셀러 작가이다.

그는 《순종》 《열정》 《구원》 《존중》 《은혜》 《성령님》 《분별력》 《승리》 《회개》 등 다수의 주옥같은 믿음의 글들을 남겼다.

서울에서 경주로 이사 오기 전 마지막으로 들렀던 삼성동 코엑스 서점에서 이 책을 발견하고 주저 없이 구입하여 단숨에 읽어 내려갔다. 《Good or God?》이라는 제목이 내 눈과 마음을 사로잡은 것이다. 이 책은 총 6파트, 14개의 주제로 구성되어 있다. 목차의 제목만 보아도 세상에 선해 보이는 것들에 폭 빠져있는 우리를 깨워 근신하게 하는 내용임을 알 수 있다.

저자는 프롤로그에서 요즘은 ‘good’(선하다, 좋다)이라는 말과 ‘God’(하나님)이 거의 같은 뜻으로 쓰이는 듯하며, 일반적으로 우리는 스스로 선하다고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한다고 믿는다고 지적한다. 우리를 위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완전하고 선한데 우리가 하나님의 최선을 받아들이지 못하게 방해하는 가짜 선을 만들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그 가짜 선에 만족하고 자신도 모르게 하나님보다 우리 눈에 ‘선해 보이는 것’들을 추구하며 산다는 것이다.

PART 1.

선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

Part 1은 ‘선해 보이는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일까?’라는 질문을 통해,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처럼 현재를 사는 우리도 날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선악과 앞에 서 있다고 지적한다. 하나님이 금하신 선악과를 따 먹은 하와처럼 우리는 내 삶을 더 좋게 해 줄 거라 믿게 만드는 유혹을 늘 받고 있고, 결국 그것에 배신을 당하고 만다는 것이다. 사단의 전략은 에덴 동산에서의 전략과 동일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수천 개의 맛있는 나무 열매를 임의로 먹을 수 있는데, 금하신 한 가지 열매, 즉 우리가 받지 못한 것에만 집중하게 해서 마침내 그것을 따 먹도록 유혹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무엇이 최선인지 내가 결정할 것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인생 설명서인 ‘성경’ 만이 절대적인 선의 기준임을 저자는 힘주어 말하고 있다.

PART 2.

계속해서 내 삶을
주장하는 한 가짜
선애 휘둘러줄 수밖에
없다.

Part 2는 ‘계속해서 내 삶을 주장하는 한 가짜 선애 휘둘러줄 수밖에 없다’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섬기는 삶(not as the Savior, but the Lord as well)에 대해 역설한다. 성경에는 ‘구주’, ‘구세주’(Savior)라는 단어가 36번 나오는 반면, ‘주’, ‘주님’(Lord)이라는 단어는 7,800번 이상 나온다고 분석한다. 구세주는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신 일을 나타내지만, 주는 그분이 우리 삶 속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나타낸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이시며 독재자(?)이시지만, 감사하게도 그분은 자애로운 독재자이시며 우리 삶의 모든 면에서 최종 결정권을 갖고 계시므로, 우리는 더 이상 스스로 선악을 판단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님을 인식하라고 주문한다. 우리가 구원이라는 시급하고 중대한 명령에 순종하느라 놓치고 만, 그리스도를 우리의 ‘주인’으로 섬기는 삶의 회복을 저자는 촉구하고 있다.

PART 3.

인생 내비게이션 세팅을 새롭게 하라.

Part 3에서는 ‘인생 내비게이션 세팅을 새롭게 하라’라는 주제를 통해, 적당히 좋은 것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 삶의 내비게이션의 최종 목적지를 정확하게 세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저자는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인가? 다른 모든 갈망보다 더 중요한 갈망은 무엇인가? 우리 안에 있는 내비게이션은 어디에 맞춰져 있는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 모세는 시내 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후 그의 내면의 내비게이션을 확실히 설정하였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그의 삶에 최고의 상으로 여겼으며, 그의 상급은 무엇보다 하나님을 친밀하게 알고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이었다고 해석한다. 우리는 하나님이 관계적인 분이시며 아빠 아버지의 마음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고, 만약 우리가 세상과 벗어나면 하나님을 버리고 간음하는 것이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질투까지 하시므로 하나님은 우리를 다른 애인, 세상과 나눠 갖기를 결코 원치 않으신다고 강조한다.

PART 4.

끝까지 사수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

Part 4는 ‘끝까지 사수해야 할 한 가지, 하나님의 임재’라는 주제인데, 저자는 ‘우리의 마음을 실제로 어디에 쏟아 붓고 있는가?’ 라고 날카로운 질문을 한다. 이 질문은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을 향하고, 주님과 사랑의 관계를 누리는 것에 전적으로 헌신하고 있는지에 대해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해준다. ‘거룩’. 이 단어를 꺼내면 사람들이 움찔하며 얼른 화제를 바꾸고 싶어하며 이 거룩을 행위를 통해 구원을 얻으려는 것과 같은 뜻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고 진단한다. 그러나 성경은 거룩하게 행하는 자만이 하나님을 볼 수 있고 그분의 임재에 들어갈 수 있으며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만 하나님 자신을 나타낼 것이라도 약속하셨다고 강조한다. 참된 거룩은 무엇인가? 거룩은 헬라어로 ‘하기오스’인데 이 단어는 하나님을 위해 구별된, 말하자면 오로지 하나님의 것이 되는 것으로 정의한다고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거룩을 회피하지 않고 참된 거룩으로 나아가는 삶, 즉 하나님께만 속하길 갈망해야 하고 우리의 삶을 오직 주님께만 맡길 때 거룩해 질 수 있음을 저자는 일깨워 준다.

PART 5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
을 먹으라.

Part 5는 ‘좋은 말씀이 아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먹으라’라는 명령적인 주제를 다루고 있다. 거룩함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위해 구별되는 것이며, 순결하고 죄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우리는 스스로의 능력으로는 이러한 삶을 살 수 없음을 지적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동력을 공급하는 연료를 예비하셨는데, 바로 ‘은혜’라는 연료라고 밝힌다. 값없는 구원과 용서, 사랑 등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에 틀림이 없으나, 오늘날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부여해 주는 이 은혜를 강조하지 않았기 때문에 신자들이 경건함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희망과 격려를 주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필요하지만 책망과 징계, 죄의 깨달을 주는 메시지 역시 필요함을 강조하고, 듣기 편한 메시지가 아니라 ‘살리는 메시지’를 갈망하고 사모해야 함을 일깨워준다.

PART 6.

당신에게 명령하신
진짜 선한 삶을 시작하라.

마지막 Part 6은 ‘당신에게 명령하신 진짜 선한 삶을 시작하라’라는 주제이다. 전쟁터는 바로 우리의 마음이며 제어해야 할 것은 우리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라고 강조한다.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과 능력을 부여하는 은혜가 주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게 해 주기 때문에 이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동기는 첫째, 예수님과 사랑에 꼭 빠져야 하며, 둘째 거룩한 두려움이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우리는 말씀, 기도,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야 하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인정해야 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것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이다. 거룩한 두려움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것을 미워한다고 강조한다.

이스라엘을 살린 에스더 왕비

객원위원 오주환 목사

“..... 내가 만일 그 일로 죽어야 한다면 기꺼이 죽겠습니다”(에 4:16)

아하수어로 왕은 거만한 왕비 와스디를 왕궁에서 내쫓고 새로운 왕비를 뽑겠다고 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자신이 돌보는 사촌 동생 에스더에게로 달려갔어요. 사촌 오빠 모르드개의 권유로 에스더는 왕비를 뽑는 대회에 나가게 되었답니다. 구름처럼 몰려든 처녀들 사이에서 에스더는 단연 돋보였어요. 수많은 처녀 가운데 후보로 뽑힌 에스더는 1년 동안 얼굴과 몸을 가꾸며 궁중의 법칙과 예절을 배웠어요. 1년이 흐른 후 드디어 왕 앞에 서게 된 날, 여인들은 모두 초조해 마음을 졸였어요. 드디어 에스더 차례가 되었답니다. 왕은 에스더를 보더니 한눈에 반하고 말았지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에스더라고 합니다.”

“페르시아 왕국에 이런 미모의 여인이 있었다니! 자, 오늘 너를 왕비로 택하겠노라.”

그날로 에스더는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되었어요. 에스더가 왕비가 되자 사촌 오빠 모르드개는 기뻐서 눈물을 흘렸지요.

그러던 어느 날 모르드개가 길을 가다가 수상한 남자들의 대화를 엿듣게 되었답니다. 그들은 아하수어로 왕을 죽이기 위한 음모를 꾸미고 있었어요. 모르드개는 사람을 시켜 에스더 왕비에게 이 사실을 알렸어요. 에스더 왕비는 즉각 왕에게 이야기 했고, 왕을 죽이려 한 사람들은 처형을 당하고 말았지요. 이 일 이후로 모르드개는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책에 왕을 구한 사람으로 기록되었답니다.

모르드개가 왕의 인정을 받는 것을 못 마땅하게 여긴 사람이 있었어요. 그는 바로 왕이 가장 아끼는 하만 장군이었지요. 하만 장군은 자신이 지나갈 때 고개 숙여 절을 하지 않

에스더 Esther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개에게 회답하여
당신은 가서 수신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라
발낱 삼일을 먹지도 말고 미시지도 마소서
금새를 머기고 왕에게 나아가라니
죽으면 죽으리라."
(에 4장 15-16절)



는 모르드개가 눈엣가시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모르드개는 하나님이 아닌 하만에게 절을 할 수는 없었어요. 하만 장군은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모르드개를 볼 때마다 화가 치밀었어요. 모르드개를 벌주고 싶었던 하만은 왕에게 일러바쳤어요.

“왕이시여! 왕께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저에게 절을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는 민족이 있습니다. 왕께서 온 나라에 명을 내려 왕의 명령을 듣지 않는 민족을 전부 죽이도록 해주십시오.”

“그래? 그럼 내 반지를 줄 테니 네 뜻대로 하여라.”

하만은 앞으로 자신에게 절을 하지 않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모두 죽이겠다는 발표를 했어요. 이 소식을 들은 모르드개는 에스더 왕비를 찾아가 눈물을 흘리며 도움을 청했어요.

“에스더야, 우리 민족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두 죽게 생겼다. 그런데 왕이 부르지 않는다고 그냥 눈뜨고 지켜만 볼 것이냐?”

입장이 난처해진 에스더는 골똘히 생각에 잠겼어요.

“오빠, 왕이 저를 찾지 않으신 지 한 달이 되어 가요.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왕을 보러 갔다가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3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라고 해 주세요. 저도 함께 금식한 후 죽을 각오를 하고 왕께 나아가 우리 민족을 살려 달라고 부탁해 보겠어요.”

그날부터 에스더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금식하며 기도했어요. 금식을 마치자 에스더는 옷을 단정하게 입고 왕이 부르지도 않았지만 왕이 있는 궁으로 나아갔어요. “죽으면 죽으리다!”하는 각오로 나아간 것이었어요. 그때 높은 의자에 앉아 있던 왕은 앞뜰에 서 있는 에스더를 발견했어요. 에스더는 왕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긴장했어요. 왕은 에스더를 불러 기다란 막대기 같은 홀을 내밀었어요. 홀을 내민다는 것은 왕이 왕비를 기쁘게 맞이한다는 의미였지요.

“왕비, 정말 오랜만이에요. 그동안 더 아름다워진 것 같소이다. 그런데 혹시 나를 찾아온 이유가 있소? 당신의 부탁이라면 무엇이든 들어줄 테니 말해 보시오.”

“왕이시여!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하만 장군과 함께 잔치에 참석해 주십시오.”



“하하하, 그런 일이라면 기꺼이 해 주리다.”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터가 준비한 잔치에 참석했어요. 왕은 음식을 먹으며 에스터에게 물었지요.

“자, 이제 당신의 진짜 부탁을 들어보고 싶소.”

“왕이시여, 내일 한 번 더 잔치를 하려고 합니다. 내일 하만 장군과 함께 와 주십시오. 그때 제

소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잔치를 마친 왕은 왕궁으로 돌아갔어요. 잠이 오지 않던 왕은 페르시아 왕국의 역사책을 읽다가 자신을 살린 모르드개에게 상을 주지 않았음을 알게 되었어요. 왕은 새벽에 하만을 불러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물었어요. 하만은 왕이 자신에게 상을 주려는 것인 줄 알고, 자신 있게 말했답니다.

“왕이 타시는 말에, 왕이 입으시는 왕복을 입고, 왕관을 씌운 후, 왕이 귀하게 여기시는 신하가 그 사람 앞에서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고 외치며 다니게 하십시오.”

“그래? 알았다. 오늘 자네가 한 말대로 모르드개를 대해 주게.”

하만은 왕의 말에 갑자기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왕의 명령대로 하만은 그날 모르드개를 왕의 말에 태워, 온종일 “왕이 가장 사랑하는 사람입니다!”를 외치며 돌아다녔지요.

에스터 왕비의 두 번째 잔치가 열리는 시간이 되었어요. 왕은 에스터 왕비에게 진짜 소원을 물었답니다. 에스터는 다소곳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왕이시여! 저는 이스라엘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자기에게 인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스라엘 사람들을 전부 죽이려고 합니다. 왕이시여! 제발 이것을 막아 주십시오.”



“그 자가 대체 누구요?”

“바로 하만 장군입니다.”

“뭐라고? 하만이?”

아하수어로 왕은 얼굴이 벌게져서 마음을 진정시키려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사이 하만

은 에스더 왕비에게 다가와 살려달라고 빌었지요. 때마침 왕이 다시 방으로 들어왔는데, 하만이 에스더 왕비 곁에서 왕비를 만지려는 것으로 착각하고 소리를 질렀어요.

“이런 발칙한 놈을 봤나. 감히 왕비를 범하려고 하다니!”

“아, 아닙니다. 왕이시여, 오해하신 겁니다.”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어요. 잔뜩 화가 난 왕은 하만이 모르드개를 죽이려고 만든 교수대에 하만을 달아 죽이라고 명령을 내렸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 모두를 죽이려고 했던 하만은 그날 자기가 만든 교수대에 달려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에스더 왕비의 용기 있는 행동으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었답니다.

말씀을 돌아봐요

에스더 왕비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 당시 왕이 먼저 부르기 전에 먼저 왕을 찾아가는 것은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런데도 에스더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 하나님께 기도하고 용감하게 왕을 찾았지요. 그때 비로소 에스더는 자신이 페르시아 왕국의 왕비가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깨닫게 되었어요.

자신의 목숨이 위태로워질 수도 있는데, 다른 사람들을 구하기 위해 나설 수 있는 용기는 아무나 가질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갖기 힘든 용기이지요. 에스더 왕비도 처음에는 왕 앞에 나서는 것이 두려웠어요. 그래서 삼촌 모르드개의 청을 거절했지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하만의 모함 때문에 죽는 것은 잘못된 일임을 알고,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했어요.

우리는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닌, 에스더처럼 남을 돕는 사람이 되어야 해요. 아픈 친구를 걱정하고, 도움이 필요한 친구를 돕고, 친구가 힘들 때 함께 기도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바래요. 그러면 언젠가 에스더처럼 나라를 구하는 멋진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예요.

두 손 모아 기도해요

하나님, 에스더 왕비는 죽을 각오를 하고 용감히 왕 앞에 나아갔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죽음에서 구할 수 있었어요. 저도 에스더 왕비처럼 용감하게 어려운 친구를 돕게 해 주세요. 하나님을 믿는 용기 있는 어린이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크리스천 교양 - 알고 보면 더 은혜로운 성화(聖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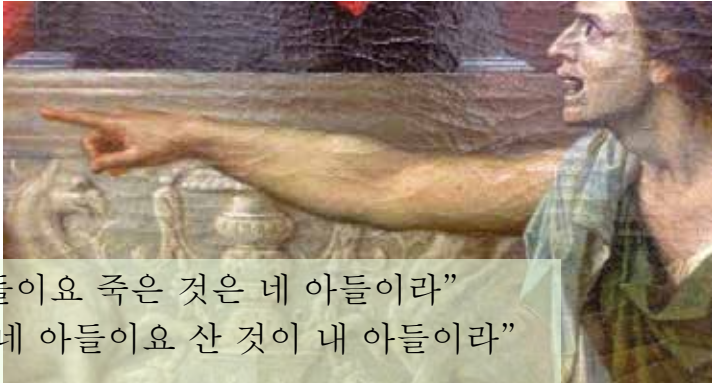
진짜 엄마를 찾아서

『솔로몬의 재판』 니콜라 푸생(17세기경, 루브르 박물관)

편집부 최영은 성도



한 집에 살던 두 명의 창기가 솔로몬 왕 앞에 나왔습니다. 한 여인이 아들을 낳았고, 3일 뒤 다른 한 여인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중 한 여인이 밤에 잠을 자다가 자신의 아들 위에 누워 아들을 죽게 만들었습니다. 잠에서 깨어 이 사실을 알게 되자, 한 집에 살던 다른 여인의 아들과 죽은 자신의 아들을 바꿔놓았습니다.



“산 것은 내 아들이요 죽은 것은 네 아들이라”
 “아니라 죽은 것이 네 아들이요 산 것이 내 아들이라”

솔로몬은 다윗에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습니다. 솔로몬이 하나님께 일천 번제를 드리며 기브온에 머물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꿈에 나타나셨습니다.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은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습니다. 자신을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라고 겸손히 말

했던 솔로몬은 이미 이스라엘을 ‘심히 건고히’(왕상 2:12) 통치하고 있던 유능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광도 주셨습니다. 꿈에서 갓 솔로몬은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고, 신하들에게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이때 창기 두 명이 살아있는 아이의 진짜 엄마를 찾아달라고 솔로몬 앞에 나온 것입니다.

“산 아이를 둘로 나누어 반은 이 여자에게 주고
 반은 저 여자에게 주라.”

“내 것도 되게 말고 네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산 아이를 저 여자에게 주고 결코 죽이지 말라
 저가 그의 어머니이니라.”

솔로몬을 향해 양 팔을 활짝 벌리고 애원하는 표정을 통해서 생모의 ‘마음에 불이 붙는 것 같은’(왕상 3:26) 심정을 느낄 수 있으신지요. 푸생(Nicolas Poussin, 1594. 6. 15. ~ 1665. 11. 19.)은 『솔로몬의 재판』이라는 작품을 속에 이 장면을 긴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기심과 놀라움, 두려움이 지켜보는 사람들의 얼굴에서 드러납니다. 많은 화가들이 이 성경 말씀에 영감을 받고 이 장면을 그렸지만, 푸생만큼 주변 인물들의 생생한 표

정을 그린 화가는 드뭅니다(심지어 한명 한명의 피부색까지 다 다릅니다). 왕의 위엄을 상징하는 온갖 상징 속에서 그림의 한 가운데에 앉아있는 솔로몬. 그를 중심으로 삶과 죽음, 진실과 거짓, 색채와 색채가 팽팽하게 대비되고 있습니다. 두 여인의 주장과 왕의 명령, 명령을 따르는 자와 속수무책으로 잡혀있는 아기. 솔로몬의 시선과 손가락의 방향으로 보아 그는 이미 진실을 알아챈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외아들을』 (294장/통 416장)

객원위원 고은정 집사

- 작사: 다네기찌 미타니 (Tanekiti Mitani, 1868-1945)
- 작곡: 미상(Sambika, 1903)

이 찬송의 작사자는 일본인 전도자 다네기찌 미타니 (Tanekiti Mitani)로, 영어에 능통하여 영국 선교사의 통역사로 직업을 바꾸어 전도 통역을 하다가 주님을 영접하게 되었고, 소명을 깨달아 자신도 전도자로 나섰습니다. 1890년 영국 국교 선교협회의 전도대 일원으로 함류해 전도를 다녔고, 1893년 최북단 북해도에서 남단의 오키나와에 이르는 전도여행에 참가하며 이때 많은 찬송시를 작사하였습니다. 그 후 1905년부터 1945년까지 문서전도에 전념하며 신문사에서 재직하면서 찬송가뿐만 아니라 신앙서적과 신학서적도 번역하여 일본에 소개하는 일도 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요3:16)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본 찬송가는,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사랑과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외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세상 죄를 사하시려 우리 죽을 대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오라 곤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후렴: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사랑이 아닌가

먼저 1절과 3절은, 독생자까지도 아낌없이 주시는 성부 하나님의 참 사랑과, 그 고난의 잔을 받아 우리 대신 죽으신 성자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절에서는, 그 크신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과 그 사랑을 저버리는 우리 인간의 모습을 대비시켜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영원한 사랑을 강조하며, 4절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로서 지금 곧 주께 나아와 삶 전체를 맡기고 구원의 주님만을 신뢰하며 살 것

한편 후렴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을 의문 형식으로 제시하여 독자가 스스로 결론을 내리게 하는 표현법을 사용하여, 하나님은 곧 참 사랑이라는 명확한 진리를 다 시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조성은 크게 장조와 단조로 나뉩니다. 장조는 밝고 따뜻하고 단조는 어둡고 슬픈 느낌을 줍니다. 또한 플랫(b)이 붙은 조는 부드럽고 상냥하고 온화한 느낌이 들고, 샵(#)이 붙은 조는 적극적이 밝고 화려합니다. 통일찬송가에서는 다장조(C)로 조성의 느낌이 소박하고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물 흐르듯 거침이 없는 느낌이 있어 그 나름대로 좋지만, 새 찬송가에 실으면서 내림나장조(Bb)로 바뀌면서 안정된 고요함 속에 아름다움과 부드러운 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곡 가사전달의 느낌이 더 사는 것 같아 저는 더 좋은 것 같습니다.

294

T. Mizlari, 1901

보통으로

하나님은 외아들들

Karni wa Hiloiko o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요 3:16)

(통일 416)

은혜와 사랑

GOD'S LOVE: 은혜와 사랑

Sundtke, 1903

후렴

쉬운 기악코드(capo=3rd) B^b→G E^b→C F→D F7→D7 C→A

두 아들을 출세(?)시킨 살로메

편집부장 안영화 집사

네 권의 복음서들이 기록될 때 같은 신앙 사건을 조명하면서도 그 입장과 처지는 각기 다르다. 그리고 그 초점은 항상 예수그리스도에게 맞춰졌기 때문에 그 주위에 나오는 인물들이나 배경은 때때로 희미하게, 때로는 아주 잘려 나가기 마련이다. 여기서 살로메라는 여성을 찾아 새롭게 부각시켜보자.

여성 제자들의 기록은 왜 성경에서 사라졌나

예수님의 주위에는 열두 제자를 비롯한 그 밖의 남성 조력자들 못지 않게 충성스럽게 예수님을 섬기고 따른 여성들이 있다. 그들은 예수님의 공생애 기간뿐 아니라 부활하시고 난 뒤 교회 창설에까지 지대한 공로를 남길 만큼 훌륭했던 여성 제자들이다. 그러나 복음서를 보면 그 기록자들이 여성 제자들의 활동 상황을 어떻게든 빼거나 축소하려고 한 저의가 발견된다. 여성들에 대한 기사를 어쩔 수 없이 기록했다 해도 지극히 간결한 묘사가 고작이고 대부분은 이름이나 기록하는 정도이다.

예수님을 끝까지 따랐던 여제자들

우리가 살로메라는 여인에 대해 잘 모르는 것도 바로 그런 까닭이다. 그러나 살로메는 복음서에 자세히 기록되었던 그 많은 제자들이 막상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이 시작되는 시점에서 모두 종적을 감추었던 것과는 달리, 예수님을 따라 골고다 언덕을 걸었고, 십자가 밑에서 통곡하며 운명의 순간을 지켜보았던 여인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운명하시고 난 후 피를 닦아내고 향품을 발라 장례를 지냈고 다음날 새벽에 무덤을 찾아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부활의 증인이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 살로메가 복음서 속에서 예수님의 제자들 대신 예수님께 꾸중을 듣는 역으로 의도적으로 기록되었다는 것은 참 유감스러운 일이다.

<마20:20~23>

20 그 때에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21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느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22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23 이르시되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막10:35~40>

35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아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36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37 여짜오되 주의 영광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38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39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40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이 두 내용은 마태와 마가복음서에만 나와 있다. 두 가지 성경 구절이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으나 한 가지 크게 다른 점은 둘 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이었는데, 마태복음은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세배대의 아들의 어머니’인 반면 마가복음은 ‘세배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것을 구하는 사람이 세배대의 아들들이든, 그들의 어머니이든 무엇이 그리 크게 다른가라고 생각 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을 보면 그것을 구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밝혔어야 마땅한 것이다.

예수의 이모, 살로메

복음서 기록자들이 어떻게 해서든 여성들의 활동을 도외시하려고 하였지만 도저히 뺄 수 없는 기록들이 몇 가지 있었다. 그것은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와 섬김의 자리,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수난과 부활의 현장이다. 예수님을 낳고 예수님의 생활을 보살폈던 일들은 여성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었기에 무시할 수가 없었다. 또한 예수님의 십자가 현장이나 부활의 현장에 남자 제자라곤 없었기에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며 지켜보았던 여제자들의 기록을 뺄 수는 없는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서 기록자들은 그렇게 중요한 십자가 현장의 여인들의 모습을 다음과 같이 지극히 간결하게 기록하고 있다

<마27:56>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 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

<막15:40>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세사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으니

<요19:25>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그 세 여인들이 조금씩 다르게 표현됨으로써 중요한 사실이 발견된다.

첫째, 막달라 마리아는 세 복음서에 모두 막달라 마리아로 기록하고 있다.

둘째,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혹은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더불어 모두 마리아라는 공통 분모가 있기에 동일 인물일 것으로 유추가 가능해진다. 따라서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는 글로바의 아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셋째,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를 마가복음은 살로메라고 표현하고 있다. 즉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 이름이 살로메이며, 그녀는 예수의 이모라는 것이다. 따라서 세배대는 예수의 이모부이고 그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과 이종사촌 형제지간이라는 것이다. 그러니 요한복음 기록자 요한이 이모라는 표현을 쓴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것이다.

마태복음 저자는 끝내 살로메라는 이름을 무시하고 세배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는 비인격적인 호칭을 썼지만 여성에게 관심을 갖고 성경을 들여다보면 이렇게 흥미 있는 사실들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늘의 자리를 미리 맡아두자

마태복음 기록자가 구태여 세배대라는 이름을 거론했던 것은 세배대라는 사람이 당시

에 잘 알려진 인사였기 때문이다. 그는 갈릴리 호숫가에서 어업으로 대성한 사람으로, 예수께서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들이 아버지 세배대와 그의 배들과 그리고 많은 일꾼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는 기록(마4:22, 막1:20 참고)이 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속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 것이다.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아무도 제자가 되지 않았고 예수님께 공로를 세우지도 않았다. 그러니 예수님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은 우리 둘이 아닌가. 예수님이 왕 중의 왕으로 오실 땐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의 좌우편에 앉아야 하는데 잘못하다가는 다른 제자들에서 빼앗길지 모르니 미리 확실히 해 두자.’

그러나 그와 같은 일을 직접 부탁하기에는 좀 민망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를 앞세워 부탁을 했을 것이다. 살로메는 아들들의 성화 때문에 예수 앞에 나아가긴 했으나 “우리 아이들이 네게 부탁이 있는 모양인데 들어주겠니?”라는 정도의 말을 했을 것이고, 마가복음의 기록대로 구체적인 부탁의 말은 아들들이 했을 것이다.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엉뚱한 요청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하신 말씀은 “너희가 지금 구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는가? 그것은 나의 잔을 마시는 것, 또 십자가의 피와 고통을 받는 것이다. 즉 나의 고난과 죽음에 동참하는 것이다. 그것을 할 수 있는가?”라는 말씀이었다. 야고보와 요한은 그 참뜻을 알지 못하고 할 수 있다고 대답했으나 그들은 훗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되어 예수님의 예언대로(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한 사람은 순교하고 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주님의 사역을 위해 모진 고초와 고난을 겪었다. 이처럼 ‘두 아들을 출세시킨 살로메’라는 표현은 세상 사람들의 안목에서 본 출세가 아니라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차원에서 본 출세란 뜻이다.

죽는 날까지 예수를 따른 여인, 살로메

사실 두 아들을 위해 예수님께 나아갔고, 그녀가 아들들을 통해 예수님으로부터 간접적인 힐난을 받았을 때 무척 부끄럽고 낮을 들 수 없었을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축복받고 예수님을 따르거나, 병 고침을 받고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한다. 그러나 살로메는 힐책을 받고도 예수님을 따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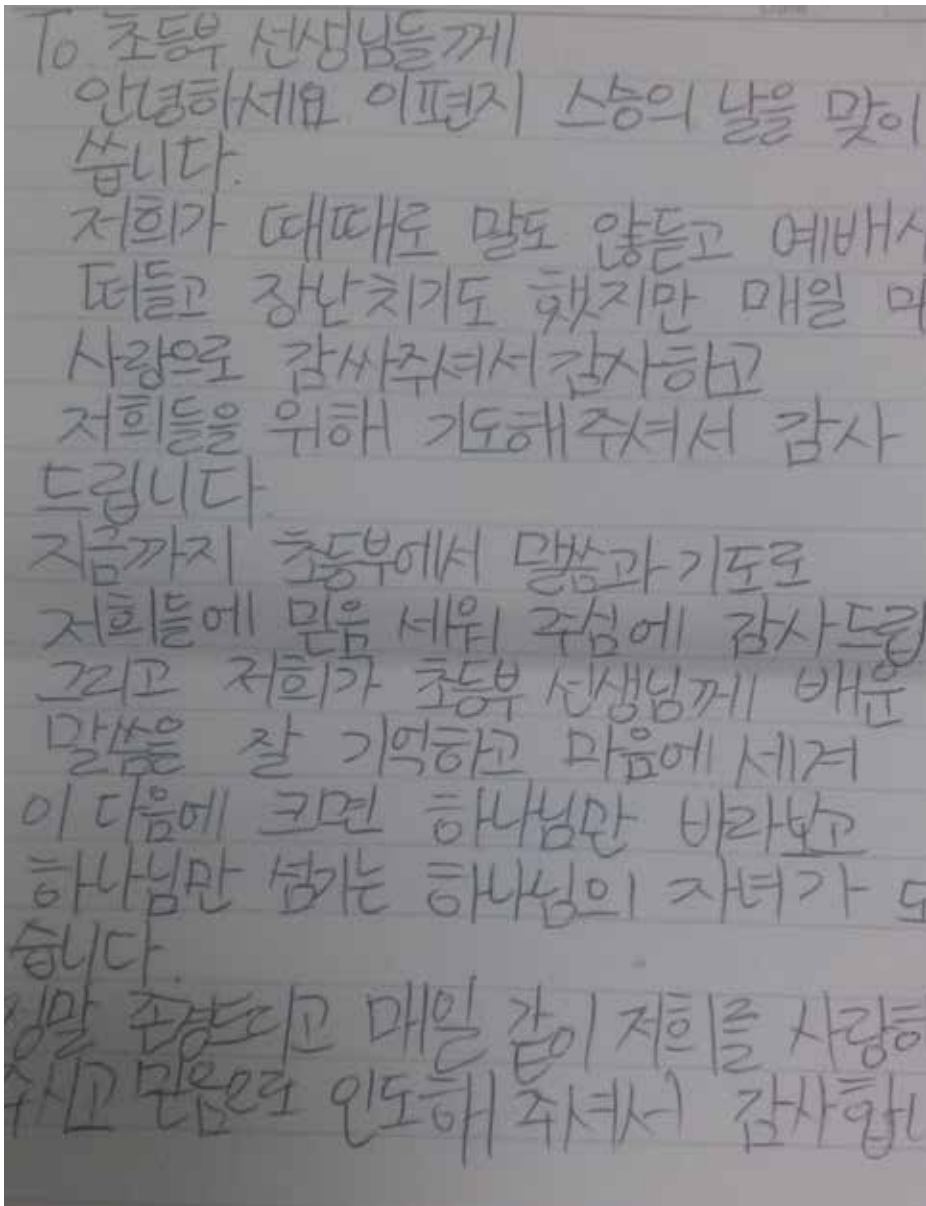
그녀는 자식들의 사건을 통해 예수님이 메시아로 오신 참뜻을 깨달았기 때문에 열두 제자들이 모두 도망을 간 상황에서도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고 섬겼다.

하루 이틀은 누구나 섬길 수 있다. 한두 달은 누구나 봉사할 수 있다. 아니, 일이 년은 충성할 수 있다. 그러나 평생 그 누구를 섬기는 일은 쉬운 게 아니다. 살로메는 죽는 날까지 주를 따르고 섬겼다. 그것이 무엇보다 귀한 것이다.

사랑은 편지를 타고

-약속의 땅2부에서 가정의 달 5월에 편지를 통해 진심을 전하는 시간-

편집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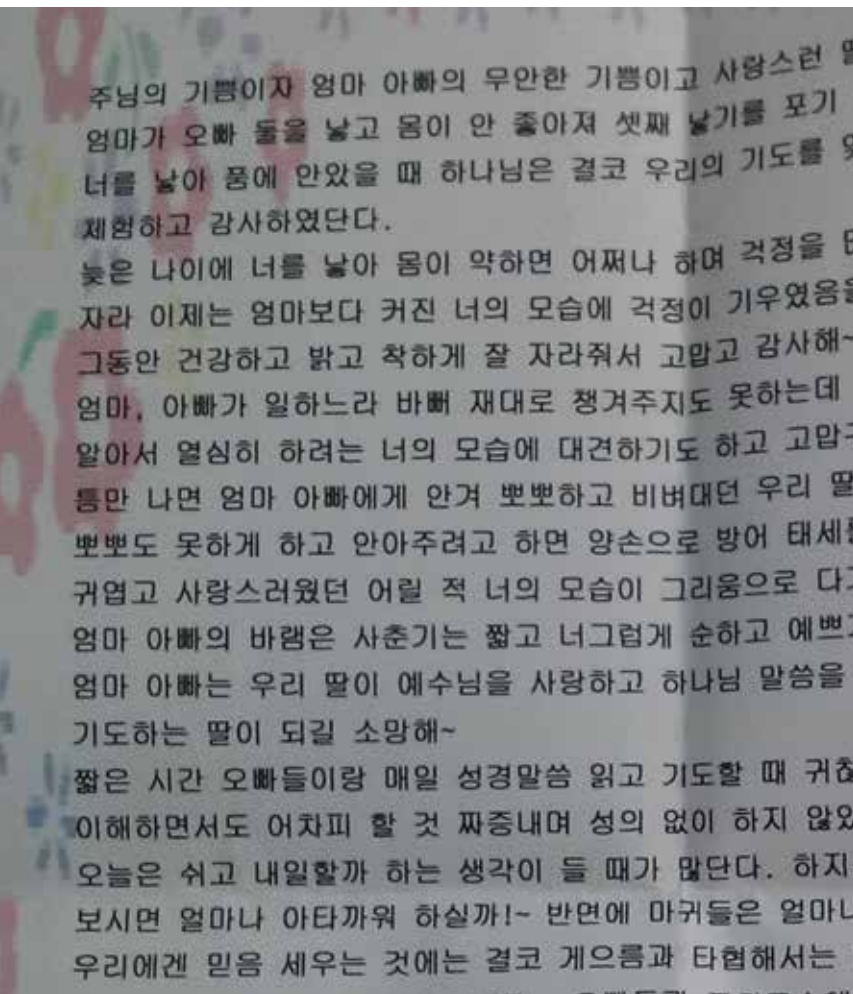


약속의 땅2부(초등부) 박주희 학생의 편지. 스승의 주일에.



아이들을 사랑으로 가르치시는 선생님들. 스승의 주일에.

약속의 땅 2부 이가
현 학생이 스승의 주
일을 맞아 선생님(정
은송 청년)께 쓴 편지
를 읽는 모습. 한 장
가득 선생님에 대한
감사와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박주희 어린이의 부모
님(박상옥, 공미영 집사)
이 어린이 주일에 보내오
신 편지. 모든 아이들의
부모님이 같은 마음이지
겠지요. 사랑과 걱정, 위
로와 권고가 아이들에게
잘 전달되었을 것입니다.
어린이 주일에.

부모님도
선생님도
함께하는
축복의 땅(영아부)
성경학교

- 주제 : 경건한 후손을 위한 바람직한 훈육 방법
- 강사 : 전해령(총신대학교 평생교육원 유아교육 강사)
- 일시 : 7월 2일 화요일 오전 10시





“절대적인 것은 없고, 모든 것이 상대적이라고 외치는 포스트모더니즘의 쓰나미를 이길 방법은 믿음에 굳게 서는 것입니다. 상대적인 진리가 아닌 절대적 진리, 상대적 믿음이 아닌 절대적 믿음에 서는 것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요

밀알의 땅(유치부)

여름성경학교

- 주제 : 믿음에 굳게 서요(stand firm in the faith)
(깨어 믿음에 굳게 서라. 고전 16:13)
- 일시 : 7월 15일(금) ~ 17일(주일)





안녕하세요,
유치부예요!
[저희의 여름성경학교
활동을 보여드릴게요.]

환영합니다~



OX
퀴즈

실내수영



예배





기도



기념촬영



찬양

음동



저희의 여름성경학교
이야기들 잘 보셨나
요? 재밌는 여름성경
[학교 내년에는 함께
참여해주세요~!]

말씀선생님





[교회학교 사역 - 약속의 땅 1부(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약속의땅1부(유년부) 여름성경학교

서현 전도사

이번 성경학교를 통해 어린이들이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 온갖 죄악이 범람하는 세상에서 어떻게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지를 배웠습니다. 개인과 가정, 그리고 사회적인 측면에서 성경적 시각으로 방안을 찾고, 예배 시간에 결단하고 저녁집회에서 눈물로 회개하며 하나님께 삶을 헌신했습니다.

각 이동학습과 코너방은 거룩한 삶을 도전하도록 거룩의 기준인 십계명을 배우고, 가정에서 관계 분열을 일으키지 않는 언어 사용에 대해 배웠습니다. 시대적

으로 도전하는 동성애와 미디어를 대하는 태도에 대해서도 나눴습니다.

성경학교를 위해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수고, 기도로 함께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약 70명의 어린이들이 4일의 시간 동안 풍성하게 참여하며 기쁨의 시간을 보낼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례적으로 여름성경학교에 참석한 아이 중 90%의 어린이가(59명) 저녁집회와 텐트 캠핑에 참여함으로써, 교사와 유년부 어린이들끼리 서로 친밀한 유대를 갖는 추억의 시간도 함께 가졌습니다.



미니 풀장에서 물놀이



신나고 즐거운 찬양시간

1박 텐트캠핑



은혜의 저녁집회



축구게임으로 배우는 십계명

분반공부시간



150만평에 이르는 숲과 아름다운 자연 가운데서
마음껏 이야기하고 힐링할 수 있었던 수련회 장소

조금은 가까워짐 ‘64%’

-2016년 초중고 연합여름수련회-

편집부



2016년 성심교회의 교회학교에는 특별한 수련회가 있었습니다. 약속의 땅2부(초등부), 비전의 땅 1(중등부), 2부(고등부)의 아이들이 연합해서 수련회를 다녀온 것입니다. 지난 7월 28일부터 30일까지 포천에 있는 밀알훈련센터(한국성서대학교 수양관)에서 함께 울고 웃는 2박 3일을 보냈습니다. ‘Stand Firm in the Faith(믿음에 굳게 서라)’라는 주제로 100명이 넘는 학생과 50명이 넘는 선생님과 봉사자들이 서로를 챙기고 말씀

을 배웠습니다.

아이들이 수련회 중에 제일 좋았던 시간이 언제냐는 질문에 둘째날 ‘기도시간’이라고 했다고 합니다. 수련회를 마치고 아이들에게 설문조사를 했는데, ‘연합수련회 후 하나님과 나와의 친밀도는 어떠한가?’라는 질문에 64%의 아이들이 조금은 가까워졌다고 했습니다(29%의 아이들은 매우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변화하는 아이들을 보며 어른들 또한 감동을 받는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포천 왕!
믿음띠 앙!”

아이스브레이크 시간에 초중고 각
각 한 조가 되어 자기조를 소개하고
발표했습니다.



“선생님이라고
봐드리지
않습니다”

수련회장 곳곳에 있는 운동장에서
는 학생과 선생님의 즐거운 한때가
지나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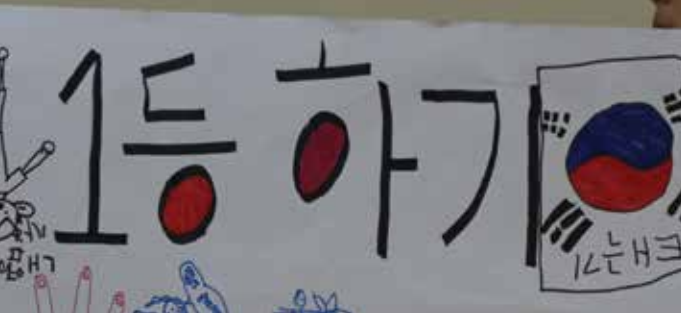
“세상 진지함”

형 누나들과 함께 하는 수련회에
초등부 아이들의 눈빛이 반짝입니다.

간증

약땅 2부 5학년
박강은

이번 수련회는 초등부는 처음으로(성경학교 제외) 수련회를
간 것이다. 수련회를 통해 눈물도 흘리고 웃기도 했다. 기억에
남는 활동은 기도회였다. 기도회는 높이 있는 예배당에서 했
는데 선생님은 우리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학생들은 자신
의 소명을 위해, 죄를 위해 기도하였다. 그리고 활동할 때(기
도회) 예수님 촛불을 켜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
이 마치 촛불처럼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을 다시 생각하는 시간
이 되었다.



“6조는
식스센스”

그렇죠. 반전은 역시 식스센스조.
반!전!매!력!을 외치면 변신합니다.

“우리 정말
1등 했을까?”

“우리조
이름은
집에
가게해조

... 응?!”

1등 하기 참 쉬웠던 10조. 알고보
니 서요한 전도사님 귀공자 스타일?

간증

약땅 2부 6학년
박주희

첫째 날 예배 드리고 초중고와 같이 활동하고 친구들이랑 놀기도 하며 시
간을 보냈는데, 첫째 날에는 별 재미도 없고, 그래서 좋지는 않았다.

둘째 날 수영장도 가고, 초중고랑 같이 게임도 하고, 달란트잔치와 양초,
빙수 만들기를 했는데 재미있고 좋은 활동들이 많았다.

그리고 기도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데 진심으로 기도를 드
리는데 너무 울컥하여 눈물을 흘렸다. 초등부에 장난이 많은 아이도, 잠잠
한 아이도, 항상 웃고 있는 아이도 모두가 기도를 하며 울었다. 그래서 수련
회에서 둘째날 기도시간이 제일 뜻 깊었다. 그 시간에는 하나님을 다시 생
각해보는 시간이 되었다.



“고등부는 () 놓고있습니다”

팔호 안에 들어갈 단어는? 정답은
'개별시간을 마치고'입니다. 역시 교
회학교의 병장(?)답게 신속하고 빠른
고등부

“수련회에서도 하는 공과공부”

각 교회학교별로 개별시간을 가졌습니다. 초등부는 재미있는 공과공부를 진행하였습니다.

“뭐라시는가 저 선생님은”

아이들의 시선이 모아지는 곳에 최대호 선생님이 있습니다. 중등부는 개별시간에 최대호 선생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이번에 7/28-7/30 까지 밀알훈련센터에서 ‘믿음 위에 굳게 서라’는 주제로 수련회를 했는데, 중학교 1학년, 2학년때 갔었던 다른 장소들과 달리 이번에 간 곳인 ‘밀알훈련센터’는 정말 시설이 좋았다. 운동장이나 배드민턴, 족구장 등과 같이 다른 형들이나 친구들과 함께 운동할 수 있는 시설들이 많아 좋았고, 숙소나 예배당 등의 상태가 좋았다.

그리고 이전에 갔던 다른 수련회들과는 다르게 이번에는 초중고 연합수련회를 하였는데, 초등부 아이들이 집중을 하지 못하고, 서로 얘기하느라 약간 소란스럽기는 했지만, 한편으로는 새로운 수련

간중
비땅1부 3학년
문준혁

회를 경험해서 좋았다.

이번 수련회 과정 중에서 제일 인상 깊었던 활동은 첫째 날과 둘째 날에 한 기도회 시간이었다. 그 이유는 전에는 기도회를 할 때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는데, 이번에는 전보다 훨씬 더 진지하게 임했던 것 같다. 또한 조현기 전도사님과 현성 목사님의 설교도 감명깊게 들었다. 특히 조현기 전도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설득시키셨다.’는 말이 나에게는 새롭게 다가왔고, 나도 하나님께서 주신 인생을 잘 살아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튜브 아니쥬
‘배’입니다”

레크레이션 시간의 일부로
비닐봉투를 묶어서 배를 만
들어서 건너게 하는 프로그
램입니다.



“지.켜.보.고.
있다”

연합 레크레이션 시간입니다. 열정적으로 게임을 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제일 재밌어 보이는건... 기분타입니다.

“떨 듯이 기쁨”

“레크레이션 시간에 웃을 찾아서 입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네요.”라고 조현기 전도사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비땅1부 3학년
오유림

이번 수련회는 전과 다르게 연합 수련회를 하여 더 재미있고,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잘 볼 수 없었던 초등부와 고등부를 만나 거기에서 또조를 짜서 같이 활동하니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고등부 언니 오빠들이 생각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일을 초등부 아이들이 하니 팀워크가 더 돈독해 진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올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올 수 있다면 꼭 오고 싶을 정도로 즐거웠습니다.

그리고 이 번 수련회에서 기도를 고등부 언니 오빠들과 하니 더 오래하고 열심히 기도했던 것 같습니다. 정말 재미있었고, 미션을 통해 언니 오빠 동생들을 알아가고 친구들과 더 돈독해지기도 하는 이번 수련회가 정말 즐거웠습니다.



“낮에는
즐겁게
저녁에는
진지하게”

초등부의 저녁집회 시간입니다.

“찬양은 즐겁다”

중고등부는 함께 저녁 집회를 했습니다. 놀 때보다 더 밝게 찬양하는 모습이 보는 사람들도 기쁘게 합니다.

수련회를 가기 전 나는 방학 내내 집에 틀어박히고 사는 생활을 했었다. 사실 교회 수련회를 가겠다고 하는 말은 내게 오히려 불만스럽고 귀찮게 느껴졌다. 게다가 처음으로 초중고 연합 수련회를 가는 것은 분명 부담되고 힘겨운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막상 2박 3일의 수련회를 지내고 나니 힘겨운 일들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었지만, 그만큼 즐겁고 추억에 남을 만한 수련회였다.

많은 후배와 선배들과 친해질 수 있었고, 교회에 대한 어색함이 많이 풀려진 것 같았다. 무엇보다도 오랜만에 주님을 만나 열정적으로 기도했다는 것이 가장 기뻐다. 나를 먼저 믿어주신 분에게 그 누구

비땅2부 2학년
박예찬

에게도 보이지 않고 내 마음속에 숨겨놓은 짐을 풀며 기도하니 어느새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의 이름을 외치고 있었다. 오늘부터 주님께 믿음을 키워달라 기도하며 이젠 말이 아닌 행동으로 일하는 내가 되고 말 것이다.

그 밖에도 세계관이나 나의 소명찾기는 나에게 큰 감명을 주었다. 그것들은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해 주었다. 그러한 강의 덕분에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인으로써 이 세상에서 살 수 있을지,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의 해답을 알게 된 것 같다. 다음 수련회는 더 준비된 마음으로 떠나고 싶다.



“지금이 바로
둘째날
연합집회”

아이들이 수련회 중에 제일
좋았던 시간이 라고 했던 둘
째날 집회의 모습입니다.

“The 좋은 것”

더 좋은 것은 무엇일까요?
중고등부 아이들은 알고 있
을 것입니다.

“슬금 슬금
맷돌이 돕니다”

중고등부 연합집회 두번째
날 맷돌 기도회 모습입니다.
한 명, 또 한 명을 위해 기도
하고 있습니다.



먹고,



기도하고,



사...이다하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청년들이 수련회에 오라

지친 청년들이 위로받고 힘을 얻은 2박 3일간의 이야기

-2016년 청년공동체 여름수련회-

편집부



수련회란 뭘 듯 기쁜것

[교회학교 사역 - 청년부]



쉬라고

오라더니

공부하네

강사님도 초청했어



“세상 어디에서도 배울 수 없는,
청년에게 꼭 필요한 강의들만 모아
봤습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잘생긴 전도사님과
비울좋은 전도사님



나누는





청년부로

오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능력에 풍덩~ 빠지는 놀
라운 체험을 하게 되실 것
입니다.”





아침 기상과 동시에 세면을 마치고 시설팀의 은혜로운 아침을 말씀으로 시작하는 큐티 모습입니다



시설 봉사팀의 교육관 실내외 페인트 사역입니다. 보일러실의 외부에서 뱀과 쥐가 들어 오는 구멍을 보수하고, 옥상의 위험한 전기선들의 정리 사역을 했습니다

‘섬김’과 ‘나눔’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전파해요

경남 창녕 국내단기선교 사역보고

김진 안수집사



2016년 8월17일~8월20일 3박4일의 일정으로 경남 창녕군 대합면 도개리 예담교회로 국내단기선교를 다녀왔습니다. 창녕으로의 단기선교는 올해로 3년 연속 진행되었습니다. 단기선교사 40명, 청년 단기선교사 3명, 하늘소리 중창단 8명 등 총인원 51명이 참여하였고, 장호철 담임 목사님께서도 18일 새벽예배 후에 바로 먼 길을 오셔서 함께 하셨습니다.

3년 연속 창녕군 예담교회로

17일(수요일) 파송 축복 기도와 힘찬 화이팅으로 6시 출발하여 11시쯤 선교지도착, 현지 목사님의 인사 말씀과 축복의

예배를 드리고 배정된 숙소에서 내일의 사역을 위해 취침에 들어갔습니다. 기상 은 6시, 아침 제조와 각 사역팀 별로 큐티 묵상과 아침 식사를 하고 난 후 아침 기도회로 힘을 듬뿍 받아 성령 충만함으로 각 사역지로 이동하셨습니다. 시설 봉사팀은 예담교회 교육과 내부와 외부 페인트 칠 작업과 뽐, 쥐, 바람이 들어오던 보일러실의 모든 구멍을 보수하고 초청일 무대 설치, 교회 옥상 배선 정리 등을 하였습니다. 식당 봉사팀은 매일 매일 단기선교사님들의 삼시 세끼와 간식을 책임지셨고, 초청일에는 100명 정도의 잔치 음식을 준비하셨습니다.



“기다리시는 시간이 바로 전도할 시간”

머리를 하리오셔서 순서를 기다리는 어르신들께 하나님의 큰 사랑을 전하고 복음을 제시하는 국내 단기선교사님들의 열정적인 모습입니다.



“요나를 통해 배워요”

3년 동안 예담교회 단기선교를 통해 아이들의 전도가 가능해지고, 수가 늘어 요나 이야기로 여름 성경학교를 실시하였습니다.



“노래팀이 부채춤까지”

노래만 잘 하는 줄 알았는데, 부채춤도 멋지게 추는 하늘소리 중창단.

미용봉사팀은 역시나 인기 많은 사역이었습니다. 줄을 서서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을 위해 쉬는 시간도 없이 모두 만족하도록 아름답게 미용해 드렸습니다. 전도팀은 전년도보다 늦은 시기라 더위가 꺾일 줄 알았는데 역시나 여름은 여름이 더군요. 더위를 참고 노방전도로 땀을 흘리며 전도하셨습니다.

인기 최고의 미용 봉사팀

전과 다르게 복음과 초청일 초대만이 아니라 어르신들의 삶의 애기도 들어 주고 공감해 주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여름성경 학교팀은 성심교회와 예담교회가 교류가 있으면서 늘어난 아이들에게 요나 이야기 코너학습으로 복음을 알리고 함께 하였습니다.

19일 초청 잔치에는 70여분의 마을 주민과 단기선교사 50명이 잔치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초청 공연장인 게이트볼 장

에서 주민과 함께 작은 운동회를 하고 하늘소리 중창단의 앞풀이와 우크렐레 공연, 부채춤 단기선교사들의 성극, 오카리나, 노래와 경품 추첨, 박양숙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복음 제시로 주민들과 즐겁고 행복한 초청잔치가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변화된 마을에 소망이

마을 어르신들과 많이 가까워지고 ‘이제는 믿겠노라’는 어르신들의 표정과 말씀 너무너무 은혜로웠습니다. 모두가 하나님 안에 하나가 되었기에 모든 일정을 순조롭게 사고 없이 마무리하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예담교회를 통해 도개리 마을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귀한 영향력을 끼쳐 하나님 나라 확장에 복된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해 주신 단기선교사님들과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성심교회 교우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도개리 극한직업”

미용 봉사는 국내 단기선교에서 극한직업이었습니다. 쉼 시간 없이 계속되고 순서를 기다리시는 마을 어르신들에게 파마, 커트, 염색을 하고 머리를 감겨드리며 성실하게 사역하였습니다.

“네! 저 국내선교 가요!”

- 2016년 여름을 바쁘고 뜨겁게 해준 국내 단기선교를 다녀와서

서지수 집사



“꼭 안가도 돼~~,
이름만 올려놓을게요.”
“네~~.”

전도사님의 한 통의 전화로 제 이름이 국내선교사에 올려졌고, 기도회 모임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김진 집사님께 성극까지 부탁을 받고는 ‘진짜 가야되나보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변의 많은 분들이 “집사님 국내 선교도 가더라?”라고 말씀하실 때마다 “이름만 올려놓으신다고 했는데... 가나 봐요.”라고 대답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나의 뜻과는 상관없이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은 이런 대답을 하나님께

서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신앙 생활을 하면서 단 한 번도 국내, 해외 선교를 가보지 않았던 저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저의 대답은 “네! 저 국내선교도 가요!”로 바뀌었습니다.

하늘소리 중창단과 함께하는 우쿠렐레, 부채춤 연습을 하고, 시간을 쪼개어 아무 재능 없는 저를 돈 많은 사모님으로 만들어 주셔서 성극 연습도 함께 했습니다. 하지만 출발할 때까지도 창녕 도개리에 예비되어 있는 영혼에 대한 생각은 그리 많이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악명 높은 미용팀에서”

늦은 저녁 예담교회에 도착해 예배를 드리고 ‘미용팀 서지수’라고 쓰인 이름표를 받고서야 ‘이제 진짜 시작이구나! 악명 높은 미용팀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나.’ 싶었습니다.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있어도 30도 아래로 내려가지 않는 곳. 그곳에서 종일 서서 머리를 자르고 파마를 하며 염색하시는 집사님과 권사님. 그 옆에서 고무줄과 종이를 집어주시는 집사님들. 모두들 아무 불평도 없이 섬기고 계셨습니다.

제가 맡은 미용팀의 보조 일은 시간 맞춰 열선 모자를 벗겨드리고, 중화제를 바르고, 머리를 감겨드리는 것이었습니다. 파마 후 샴푸는 살살 하면 된다하여 염색한 머리로 살살 감겨드렸다가 무서운 고참 언니들께 똑바로 하라고 혼도 났지만 모든 게 감사하게만 느껴졌습니다.

처음에 할머니들의 머리를 감겨드릴 때는 입이 안 열어져 “시원하시죠?”만 했습니다. 그러다 파마를 기다리시며 정장진 장로님께서 전하시는 복음을 재미있게

들으시기도 하시고, 눈물을 흘리며 듣는 할머니들을 보며 점점 용기를 내어 예수님을 소개했습니다. 할머니들의 반응은 “농사일이 바쁘다”, “우리 집에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절에 다니는데 마음 바꾸는 게 쉽지 않다”, “그 하나님한테 기도나 해서 비나 좀 오게 해라”였습니다. 그래도 “할머니 내일 저녁에 교회에 오셔서 맛있는 식사도 하시고 재미있는 공연도 보세요~” 그렇게 초청 잔치에 초대하면서 이틀이라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3년의 헌신에 함께하신 하나님

마지막 날 저녁, 미리 오셔서 자리에 앉아계신 할머니들을 보는데, ‘힘들다는 미용팀에 있었기에 저분들 머리를 내가 다 감겨드리며 한 마디씩 나누었구나. 그런데 이 밤이 마지막이구나.’ 싶은 생각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꼭 이 분들이 이 시간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시



간이 되길 간절히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60여분의 어르신들이 공연을 보며 함께 신나게 춤도 추고 노래도 하면서 마음 문을 여시고 공연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마지막 순서로 박양숙 전도사님께서 메시지를 전하시는 시간에 모두 말씀에 귀 기울이시며 “아멘, 아멘!” 하시는 어르신들. “영원한 생명이 있는 천국을 가시겠어요, 꺼지지 않는 불속인 지옥에 가시겠어요?”하시니, “천국에 가야지!”라고 대답하십니다.

전도사님을 따라 영접 기도를 하시며 눈물을 흘리시는 어르신들의 모습을 보며 이곳에 예비되어 있었던 영혼들, 성심교회 국내 선교사님들의 3년의 헌신이 결코 헛되지 않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영혼의 결실을 맺는 이 자리에 함께 있게 됨이 정말 감사했습니다.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항상 식사 시간을 지키지 못해 밤늦게 와서 배고프다 해도 위로와 격려해 주시며 맛있는 밥을 기쁨으로 차려주신 권사님과 집사님들. 국수를 두 그릇이나 드시고도 미용팀과의 교제를 위해 처음 드시

는 것처럼 함께 드시며 격려해 주신 장호철 담임목사님. 항상 필요를 채워주시려 돌봐주신 김진 위원장 집사님과 그 외 모든 분들. 국내선교를 준비하며 “그래도 올 여름 마음에 소원했던 모든 일을 할 수 있어서 감사하네요. 끝까지 체력관리 잘하고 지치지 않도록 기도 할게요.”라며 힘 팍팍 실어준 이동환 집사님.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며 2016년 여름을 바쁘고 뜨겁게 보내게 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었구나 싶을 만큼 창녕 땅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전도학교 마치면 국내선교 갈게요.”라고 했던 저의 스쳐지나가는 말을 놓치지 않으시고 저를 국내선교사로 파송하신 하나님. 앞으로 저의 삶을 어떠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실지를 기대하며, 내년에도 또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순종함으로 그 자리에 서있기를 소원합니다. 영혼을 향한 저의 마음과 눈이 2016년 8월17일 이전과 8월 20일 이후로 완전히 달라졌음을 감히 말씀드립니다.

“전도는
사명입니다!”



“아자!” 18일 목요일 점심식사 후 전도와 기타 사역을 나가기 전에 모여 함께 승리하자는 결의를 힘차게 다지고 있습니다



초청공연을 즐겁게 참여하고 계신 어르신들

“행복한 단기선교, 내년에는 같이 가요”

기록적인 무더위 가운데 부어주신 놀라운 은혜

신옥녀 권사



그 어려운 간증,
그러나 주께서 감동을 주시고

먼저 창녕 도계마을 선교 사역을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처음에 박양숙 전도사님께서 “신권사님, 간증하시면 참 좋겠어요.”라고 하실 때 “간증시키면 내년에는 안 갑니다.”라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새벽 시간 기도만 하려고 하면, 너 꼭 그거 해야 된다는 마음을 제 마음에 감동으로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편했습니다. 사실 간증문 쓰려고 하면 어떻게 써야할지 어렵

찮아요. 쑥스럽기도 하고요 주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가장 잘 아시잖아요. 성령님께서서는 사실 느낀 감동대로 간증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갈 수 없는 환경,
주께서 환경을 허락해 주시고

저는 갈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학기간 동안 아이들을 돌보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잠깐 고민하다, ‘아! 내 아버지께 기도하면 되지, 왜 내가 걱정을 하지? 내 아버지 일인데.’라고 생각하며 주일 예배 후에 있는 기도의 자리



“100인분? 문제없죠!”

초청잔치 100인분의 음식 준비로 맛있는 음식을 만드시는 권사님들 표정을 보시면 아시겠죠
기쁨으로 섬기시는 모습

에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신기하게도 선교 일정을 자녀들의 휴가 날짜와 일치하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했습니다. 순종하며 나아갈 때 내 아버지께서 일하시는 것을 금방 깨달았습니다.

그 지독한 무더위,
성령 충만으로 함께해 주시고

올해도 작년 못지 않게 정말 지독하게 무더웠습니다. 오후 6시에 교회에서 출발해서 밤 11시쯤 창녕 예담교회에 도착했을 때, 목사님과 사모님께서 반가이 맞아 주시며 하시는 말씀이, “작년에 너무 덥고 고생하셔서 안 오실 줄 알았는데, 낮익은 분들께서 모두 오셨다.”면서 손을 꼭

잡아 주셨습니다.

3박 4일 사역하는 동안,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하나같이 성령 충만한 행복한 모습이었습니다. 선교사님들이 성숙한 그리스도 인으로 각자의 맡은 사역을 맡아 지치지 않고 일하는 모습은 정말 아름답고 행복해 보였습니다.

금요일. 주민 어르신들과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게이트 볼 공연장에서 에루스 중창과, 춤, 민요, 성극, 오카리나 연주 등의 공연이 이어졌습니다. 이런 공연은 비싼 티켓을 주고도 볼 수 없는 값진 시간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박양숙 전도사님의 열정적인 복음의 메시지를 통해 주민 어르신들께서는 기뻐하시며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하는 진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식사 후 짐을 정리하고 예배와 간증 시간이 있었습니다. 예닮교회 사모님께서 선교사님들의 사랑과 뜨거운 열정을 보시고 더 주님 앞에 가까이, 더 열심히 사역하며 살아야겠다는 말씀을 하실 때 우리의 눈시울이 모두 뜨거워졌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참 사랑과 은혜를 깨달아

이렇게 모든 선교를 마치고 주일 아침 성도님들께서, “더위에 고생하셨어요, 수고 많으셨습니다.”라고 인사하실 때, “아니요, 저는 정말, 진짜,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내년에는 함께 같이 가요.”라고 화답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내 단기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참 사랑과 은혜를 더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저의 건강과 환경을 허락하시는 한 끝까지 할 것입니다.

“벌써 내년이
기다려지네요!”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위한 아들러의 가르침

- 기시미 이치로, 고가 후미타게 지음(전경아 옮김), 『미움받을 용기』, 인플루엔셜, 2014 -

편집위원장 한준명 안수집사

1. 미움 받는 데 용기가 필요하다고?

이 발칙한 제목의 책은 학교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느 곳에서든 밀려나는 것이 두려운 삶에서, 미움 받는다는 사실을 자발적 선택의 영역으로 다룬다는 사실 자체로 흥미롭다. 시작부터 그게 ‘과연 가능할까?’ 하는 심각한 물음을 스스로에게 던지게 한다. 의문은 책장을 넘겨가면서 하나씩 해결된다.

일단 이 책은 친절하다. 무엇하나 제대로 하는 것이 없고, 이해력도 부족하고, 열등감으로 똥똥 뭉쳐있지만, 어떻게든 문제의식을 가지고 상황을 이해해 보려고, 잘 해 보려고 애쓰는(나같은!) 청년의 의문을 통해 아들러의 심리학을 풀어나간다. 각각의 소제목이 내용을 충실히 요약하고 있으며, 내용 파악을 어려워하는 독자들을 위해 중심 내용마다 글자 크기를 키우고 색깔을 달리해서 밑줄까지 쳐 놓았다. 더구나 나처럼 지적 허세를 부리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인정욕구, 과제의 분리, 타자공헌, 공동체 감각’같은 심리학 용어들까지 친절하게 설명하면서 지적 욕망마저 채워주고 있

다. 이 정도면 이미 받은 먹고 들어간 셈이다.

이 글은 얼마 전 정치인에서 지식소매상으로 돌아와 왕성한 글쓰기에 전념하고 있는 유시민이 『어떻게 살 것인가』(생각의실, 2013)라는 책에서 제기한 성찰과 많은 부분 일치한다. ‘놀고 일하고 사랑하고 연대하라’는 유 작가의 성찰은 아들러 심리학에 기반을 두고 있다고 생각될 정도이다. 결국 삶이란 어떤 결정론적인 과정이 아니라 주체로서의 자아가 가치있게 선택해 나가는 과정이다. 답은 분명하다. 문제는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사실!

2. ‘원인’이 아니라 ‘목적’, 트라우마는 없다

“어떠한 경험도 그 자체는 성공의 원인도 실패의 원인도 아니다. 우리는 경험을 통해서 받은 충격-즉 트라우마-으로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경험 안에서 목적에 맞는 수단을 찾아낸다. 경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경험에 부여한 의미에 따라 자신을 결정하는 것이다.”(p.37)

그래서 불안하다며 방 안에 틀어박혀 지



내기도 하고 일부러 분노를 지어내기도 한다. 자신을 좋아하지 않겠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단점에만 주목하고, 좋아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않기 위해 ‘적면공포증’에 시달리기도 한다. 모든 것은 스스로의 ‘선택’에 의해 결정된다. 생활양식은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선’이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선택하는 것이다. 변함으로써 생기는 ‘불안’을 선택할 것이냐, 변하지 않아서 생기는 ‘불만’을 선택할 것이냐. 해결방법은 ‘용기’에 있다. ‘행복해질 용기’(p.63) 말이다.

3. 인간관계의 고민에서 벗어나게 하는 ‘인생의 과제’

“우리는 고독을 느끼는 데도 타인을 필요로 한다.”(p.81) 내면의 고민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어떤 종류의 고민이든 거기에는 반드시 타인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p.83)기 때문이다.

열등감이란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만들어진 주관적인 감정에 불과하다. “객관적인 열등성이 아니라 주관적인 열등감”(p.88)이라는 것이다. 객관적 ‘사실’을

선택할 수는 없지만 주관적 ‘해석’을 통한 ‘선택’에 의하여 얼마든지 우리의 삶을 바꿀 수 있다. “열등 콤플렉스는 자신의 열등감을 변명거리로 삼기 시작한 상태”(p.94)에서 ‘우월 콤플렉스’로 발전하여 ‘나’와 권위를 연결시키는 ‘거짓 우월성’에 빠지게 하거나 ‘불행자랑’(자신이 얼마나 불행하고 괴로운지 알림으로써 주변 사람들을 걱정시키고, 그들의 말과 행동을 속박하고 지배하려 드는)을 늘어놓게 한다. 우리가 ‘타인’만을 의식하고 인간관계의 중심에 ‘경쟁’을 두면 열등감에 빠지고,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 권력 투쟁과 복수를 하게 된다.

개인이 사회적 존재로 살아가 할 때 직면할 수밖에 없는 ‘일의 과제’, ‘교우의 과제’, ‘사랑의 과제’를 ‘인생의 과제’라 하는데, 이들은 인간관계를 통해 만들어진다. 인간관계는 친구와 지인의 수가 아니라 “관계의 거리와 깊이”(p.131)로 만들어진다. 여러 가지 구실을 만들어 인생의 과제를 회피하지 말아야 한다. 아德勒의 심리학은 결국 내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용기의 심리학’이며, 주어진 것을 가지고 활용하는 ‘사용의 심리학’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 주어졌느냐가 아니라 주어진 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이다.”(p.53)



4. 타인의 과제를 버리고 세계의 중심을 바꾸기

인간관계에서 타인에게 인정받기를 원하는 ‘인정욕구’에 빠져 ‘타인의 과제’를 수행하면, 우리의 자유를 빼앗긴다. 타인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인생의 거짓말’을 할 필요도 없고, 자기중심적으로 타인의 과제에 개입할 필요도 없다. “남이 나에게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든 마음에 두지 않고, 남이 나를 싫어해도 두려워하지 않고, 인정받지 못한다는 대가를 치르지 않는 한”(p.187) 자신의 뜻대로 살 수 있다.

과제분리가 인간관계의 출발점이라면 인간관계의 목표는 ‘공동체 감각’이다. “타인을 친구로 여기고, 거기서 ‘내가 있을 곳은 여기’라고 느낄 수 있는 것이 공동체 감각”(p.206)이다. 이러한 상태에서 “자신의 주관에 따라 나는 다른 사람에게 공헌하고 있다”(p.236)고 느낄 수 있으며, 이 가운데 인간관계는 ‘수평관계’가 된다. 타인을 ‘평가’하지 않고, 타인을 ‘행위’의 차원이 아니라 ‘존재’의 차원에서 살피게 된다.

아들러가 과연 심리학자인가 철학자인가

평가하기 어려워하는 지점이 이 부분이다. 대단히 철학적이고 윤리적인, 명분론적인 (결국은 뻔한) 삶의 가치에 대해 역설하는 것이, 힘겹게 삶의 현장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이다. 그걸 누가 모르는가. 그게 잘 안 된다는 게 문제지. 안 되는 게 개인의 책임인가? 결국 이런 어려움도 내가 알아서 해결해야 할 문제인가?

5. ‘지금, 여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바꿀 수 없는 것’에 주목하지 말고, ‘바꿀 수 있는 것’에 주목하여, “교환이 불가능함을 받아들이는 것. 있는 그대로 ‘이런 나’를 받아들이는”(p.261) ‘자기 수용의 용기’와 더불어 타인과 깊은 관계를 맺게 하는 ‘타자 신뢰’, 그리고 ‘나는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고 여기는 ‘타자 공헌’으로 나아가는 것이 “인생의 조화”(p.280)를 획득한 사람이고, 이런 사람이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다.

“겉으로는 이름이 남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남는 것은 그 이름을 떠올리게 만드



는 ‘지금 여기’에서 보낸 삶의 내용이다.”(『어떻게 살 것인가』, p.326) 라는 유시민의 생각처럼 이 글은 “찰나인 ‘지금, 여기’를 진지하게 춤추고, 진지하게 사는 걸세. 과거도 보지 말고, 미래도 보지 말고, 완결된 찰나를 춤추듯 사는 거야.”(p.318) 라고 말한다.

지나온 시간들에 발목 붙들려 상처 타만 하고 있기에는, 또는 일어나지도 않은 일에 불안해 하며 지금 이 순간의 행복을 억눌러 가며 마치 ‘만족 지연 능력’이 미래의 행복을 보장해 주리라는 기대를 하며 살아가기에는 ‘지금, 여기’를 살아가고 있는 나의 현재가 너무나도 소중하다는 사실이다. “선처럼 보이는 삶은 점의 연속, 다시 말해 인생이란 찰나(순간)의 연속”(p.301)이며 우리는 ‘지금, 여기’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비추고 살아야 한다. “인생에 있어 의미 같은 건 없다, 하지만 내가 그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다. 내 인생에 의미를 줄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밖에 없다.”(p.316)

참으로 지당하신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탄지를 걸어가는 청년이 책의 말미에 극적으로 모든 것들을 인정하는

태도로 돌변하면서 마치 새로운 세계를 발견한 양 작위적인 결말을 이끌어냈다는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책의 내용은 분명하고도 쉽다. 그러나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읽는 동안 수없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방에 밑줄을 쳐 놓았지만, 다 읽은 뒤엔 “누가 그걸 모른담? 그래도 안 되는 걸 어떻게 하라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게 한다. 그리고 책을 덮고 돌아서자마자 여전히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 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우리 아이들에게 그런 삶을 살라고 할 수 있을까? 아마 안 될 거 같다. 그래도 한번이라도 제대로 그렇게 살아보고 싶다. 어느 순간 그런 날이 올 것이라는 기대도 해본다. 그러나 여전히 안 될 거라는 낙담도 해본다. 역시 삶이란 난해하다.



여전도회 이모저모



메리메리
이모저모



70 여전도회
알레회



65 여전도회
아유회



55 여전도회
알레회를 아치고



60 여전도회
아유회





40 여전도회
올림픽공원 야유회

30 여전도회
왕벚화를 만나다



45 여전도회
야유회



45 여전도회
단합대회

50 여전도회
야유회



60 여전도회
야유회

나의 삶의 인도자 되신 하나님

조성수 장로



나의 신앙 초창기

저는 18대 종손으로 불교를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기에 예수님을 믿는 신앙 생활은 생각지도 못할 엄한 환경에서 자랐습니다. 처음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 때 어느 장로님 회사에서 직장일로 인하여 예수님을 만난 후 지금까지 신앙 생활을 해오고 있습니다.

청년 때부터 믿음생활을 시작하여 오늘에 오기까지 힘들고 어려운 시련도 많았었지만 어려웠던 환경에도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켜온 것이 큰 축복인 줄 알고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 유교적인 가통을 지켜가며 유난히도 엄하셨던 집안 어른들 때문에 듣지 못할 많은 욕설과 질책을 받으면서 참으로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믿음을 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으며 신앙을 지켜온 것이 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저는 청년 시절에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 찬양대로, 교사로, 청년회 활동을 하면서 기쁨으로 부지런히 믿음 생활을 해왔습니다. 교사로 봉사하면



서 이른 아침 아이들을 찾아 각 가정으로 찾아다니며 아이들을 깨워 교회로 데리고 왔던 일이 지금도 생생하게 생각나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운데 여기까지 지나온 나의 삶을 뒤돌아보면 감사할 것 밖에 없습니다. 지나온 삶은 평안하지만은 않았지만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서도 믿음으로 지켜온 삶이 너무 감사할 뿐입니다.

신앙은 봉사와 섬김으로 자라나는 것

신앙이란 자신만의 확고한 믿음입니다. 신앙은 인정이나 감정에 이끌리어 환경에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음’을 확신하고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신 주님을 세상 끝날까지 기다하는 데에서 자라납니다. 무엇보다 나의 소중한 믿음은 가만히 있어도 자라는 것이 아니라 힘써서 봉사하고 섬김으로 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풍족한 개방된 현실 속에서 하나님을 열심히 믿다가 신앙을 떠나는 것은 왜일까요? 학창 시절부터 열심히 믿다가 어떤 사유로든지 믿음을 떠나는 것은 너무 안타까운 일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는 것일까요? 삶의 편리함 때문에? 아니면 삶의 수호신으로? 내 꿈을 이루려고? 내 맘대로 안 되어 믿음을 떠나는 걸일까요?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를 지었기 때문일까요?

우리 하나님은 내가 그렇게 잘못 산다고 떠나실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오직 나를 살리시려고 친히 죽어주신 사랑의 주님이십니다. 다른 것을 원하시지도 바라시지도 않고 주님께서 오직 나를 사랑해 주신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눈에 보이는 세상에 미혹을 쫓아가다가 영영히 하나님을 떠나는 안타까움이 없길 바랄 뿐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얼마나 인정하는가

우리들의 삶이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만을 붙들고 살아가길 다짐하고 싶습니다. 요즘 바른 신앙생활을 한다면셔도 습관에 따라 매너리즘에 빠질까 조심스럽기도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편리함만을 추구할 때 나의 신앙생활도 편리함을 따라가야 하는가를 돌아봅니다. 고민도 해봅니다.

지금 이 어떤 시대인데 그렇게 고리타분한 생각을 하느냐고 책망할지 모르겠지만 저는 유일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신앙만큼은 세상 안목을 버리고 조금 힘들고 불편해도 세상과 구별된 아날로그 신앙을 따라가고 싶습니다.

나의 지나간 시간과 환경들 속에서,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지만 응답되지 않아 실망했던 일들이 이제 와서 되돌아보면, 내가 급하여 어쩔 줄 모를 때도 주님은 내게 가장 좋은 때를 기다리게 하시고 응답해 주신 것을 알았습니다.

지난 날들을 지금 생각해 보면, 사업에 부도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죽어 살 곳이 없어 서로 흩어져 거처를 옮겨 다닐 때에도, 현실을 원망하거나 불평도 하지 않고, 믿음을 떠나지 않았던 것이, 저에게는 오히려 큰 축복의 통로가 된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고 지쳐 어려울 때도 분명 하나님은 고통의 현실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심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신앙만큼은 아날로그로

모든 문명이 발전해가면서 우리들 삶의 패턴도 급속하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아무리 바쁜 삶이지만 이것만은 한번쯤 생각해 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되어 가지만, 우리의 신앙 패턴만은 ‘디지털 신앙’이 아닌, 믿음의 선진들이 그토록 고수했던 변질되지 않는 ‘아날로그 신앙’이었으면 합니다. 주일의 개념조차도 바뀌고 주일을 기다리는 마음조차 잃어가는 현실 앞에 우리 선진들이 그토록 지키고자 했던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겠습니다.

‘주일’은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 사용해야 되지 않을까요? 습관에 젖어 의

무적인 주일성수가 아닌 십자가 구속의 은혜를 사모하는 감사의 마음으로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봉사로, 교제로, 온종일 주일을 성수했으면 합니다.

믿음이란 가지고만 있다고 절대 자라나지 않습니다. 교회에 섬기고 봉사할 일꾼을 세우려고 찾아보면 왜 그렇게 힘들까요? 사람은 많은데 막상 일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현실이 힘들고 어려워 신앙의 편리함만을 추구한다면 언젠가는 우리들도 믿음을 떠나 주님과 상관없는 자유주의 신앙에 빠져 세상과 같이 살아가고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글을 마치면서 큰 소망을 가져봅니다. 이 시대는 디지털 시대로 빠르게 변화되어 가지만 정작 우리 사회는 도덕도, 윤리도, 교단도 무너져가고 있는 현실 앞에 큰 기대와 소망을 가져봅니다. “믿음의 성도들과 자라가는 후배들이 있기에 소망이 있노라.”라고 말합니다.

아울러 세상이 나에게 그 어떤 것으로 미혹해도 넘어지지 않는 참 그리스도 인으로 함께 살아가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리하여 주님께서 오시는 날 마지막까지 주님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믿음의 성도들이여!! 주님 안에 살아가는 것이 행복하십니까? “The best is yet to come.” 그러나 가장 좋은 것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을 기다리며 주님 안에 행복하세요!! ♡샬롬♡

면목제일교회부터 성심교회와 함께 성장한 믿음의 계보

조영순 권사



예수님을 영접하기까지

친정 어머니의 영향으로 철저한 불교 신자였던 저를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큰언니의 아픔을 통하여 부르셨습니다. 당시 언니는 위암 말기 환자였습니다.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큰언니를 살려달라고 둘째언니와 저는 하나님께 간절히 부르짖었지만 언니는 하늘나라로 먼저 떠났습니다. 사랑하는 언니를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슬픔에 하마터면 교회를 떠날 뻔했던 저를 주님께서 불쌍히 보시고 면목제일교회에서 믿음의 첫발을 일구고 말씀의 씨앗을 뿌리고 가꾸어 믿음의 뿌리를 성심교회에 깊숙이 내리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씨뿌리는 비유를 생각해 봅니다.(마 13:1-8, 막 4:13-20)

길가밭, 돌작밭, 가시밭이 아닌 옥토의 좋은 밭으로 가꾸는 데 필요한 영양소들은 많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영양분은 만남의 은혜(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여정 속에서 때를 따라 필요에 적절한 귀하고 소중한 분들을 만나는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신실하신 목회자님들과 믿음의 소중한 동역자님들 덕분에 옥토의 좋은 밭으로 믿음



이 생명처럼 잘 자라서 믿음의 꽃을 활짝 피울 수 있었습니다.

초창기 성심교회, 수고와 행복의 시간들

십년이면 강산도 변한다죠? 강산을 몇 번씩이나 변하게 한 면목제일교회로부터 성심교회의 시간들 뒤돌아 봅니다.

이치만 집사님 댁에서 4-5 가정이 모여서 첫 예배를 시작하여(그 중에 한분이 우리집 수호천사이신 어머니 신임순 권사님이십니다.) 면목5에 2층 건물을 임대하여 면목제일교회라는 명칭으로 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김희봉 목사님(당시 전도사님)과 온전히 가족적인 분위기 속에서 매주 행복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예배당이 지금의 초등부실만했습니다.

석촌동에 몇분의 헌신으로 대지를 구입하고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하기까지 참 많은 분들의 열정과 땀과 인내와 사랑, 수고와 헌신이 있었습니다. 임운택 목사님이 오시고 교회는 부흥과 발전을 거듭했습니다. 당시 우리 원로목사님은 날아다니는 슈퍼맨이셨습니다.

그 당시 전교인이 함께 떠났던 여름수련회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뜨거운 피약별 가운데 학교 운동장에 천막을 치고 예배를 드렸죠. 말쑥과 찬양의 열기와 뜨거운 태양의 열기 속에서 땀을 뻘뻘 흘리며 예배를 드렸습니다. 집사님들은 장작불을 지펴 가마솥을 걸고 밥을 짓고 국을 끓이고, 다른 한쪽에서는 석유 곤로를 피워 반찬을 만들고, 각자 가정에서 준비해 간 밀반찬들과 함께 평상 위에 모여 앉아 행복한 식사로 교제를 나누었죠.

식사 후 설거지는 당연히 청년들의 몫이었죠. 남청년들은 양동리로 불을 길어 나르고 여청년들은 큰 고무 대야에 빈그릇들을 옮겨다가 깔깔거리며 설거지를 했습니다. 남청년들은 운동으로 몸을 풀었고, 여청년들은 개울가에 모여 앉아 흐르는 물에 발을 담그고 푹푹하고 싱그러운 우정을 나누었죠. 그 때 그 멋진 청년들은 모두 목회자로 사모로 떠나가고 당시 청년 회장



으로 섬기던 남편만 든든한 버팀목으로 제 곁을 지키고 있네요.

모든 것들이 열악한 환경이었고 풍족하지 못했지만, 뜨거운 사랑으로 모든 물건들을 함께 통용하며 나눔의 은혜로 섬기며 세워가는 모습들이 참 아름다웠습니다.

믿음이란 흔들리지 않고 섬기는 것

결혼 이후 남편의 잦은 해외 근무로 승용차가 없어서 어린 신권이랑 요한이를 데리고 버스를 몇 번씩이나 갈아타면서 석촌동까지 오기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참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예배의 자리를,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를 빠지지 않고 지켰습니다. 그 때 너무 힘이 들어서 평소 같으면 겁이 많아 엄두도 내지 못했을 텐데, 그 무서운(?) 운전을 배웠답니다.

믿음이란, 어떤 형편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며 감사와 인내로 순종하면서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히 11:1-2)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 강대상 꽃꽂이로, 성가대 반주로,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 교사와 회장으로 맡겨주신 사역의 자리를 지킬 수 있었던 원동력은 순종의 섬김에서 얻어지는 평안과 기쁨의 은혜였습니다. 강대상 꽃꽂이와 성가대 반주는 하나님과의 약속된 믿음의 헌신이고, 기쁨의 은혜였습니다. 주일학교 교사로, 구역 교사로 섬길 때는 참 많은 눈물과 함께 인내를 배웠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반 친구들을 만났고, 선생님들과 함께 학생

들 집으로 심방하며 부모님들을 만났고 학교로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주일 아침이면 이른 아침 학생들 집으로 직접 찾아가 깨워서 예배의 자리로 데리고 와서 함께 예배 드렸죠. 한 달에 한 번씩 교사들이 준비한 음식들과 선물들을 한아름씩 안고 임마누엘 집으로 중고등부 학생들과 함께 찾아가서 예배와 찬양의 은혜 안에서 봉사하며 그들의 아픔을 함께 나누며 함께 눈물 흘렸습니다.

2003년 중등부 졸업 여행에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내린 폭설로 미시령 고갯길에서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지면서 죽음의 순간에 살았으신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기도 했습니다. 중고등부 비전 트립 때 지리산 천왕봉까지 오르고 그 후유증으로 3개월 동안 한의원 다니면서 침을 맞으려 지팡이 짚고 다녔던 기억도 떠오릅니다.

또 한 가지 행복했던 기억이 떠오릅니다. 매주 중등부 교사들이 각자 집에서 준비해 온 풍성한 먹거리들을 중등부 교사실에 모여 나누었습니다. 가끔씩 사모님들이 사택으로 교사들을 불러 식탁의 자리를 만들어 주시며 섬김의 수고에 날개를 달아 주셨습니다. 그때 함께 섬기며 웃고 울던 교역자님들과 사모님들, 선생님들이 그립습니다. 모두모두 믿음과 섬김의 열정들이 참 대단하셨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고난을 행복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좋은 때와 힘든 때가 공존할 수밖에 없는 광야같은 세상에서 제 의지와는 상관 없이 불쑥불쑥 우리 가장 속으로 찾아오는 불행과 고난은 도저히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주님께서서는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정에 침입하는 고난과 불행을 통하여 하나님을 새롭게 만날 수 있는 기회로 삼아 고난을 행복으로 바꿀 수 있는 놀라운 체험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고난이 불행이 아니라 축복의 은혜임을 깨닫는 지혜도 주셨습니다. 고난이 없이는 믿음의 성숙도 없음을 깨닫고 인내함으



로 감사함으로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겸손하게 무릎 꿇는 은혜도 주셨습니다. 힘들 때, 아플 때, 어려울 때, 믿음으로 하나 되어 신뢰함으로 서로 믿어주고 힘을 주고, 사랑으로 손잡아 주며 어떤 힘든 환경도 극복할 수 있는 소중한 가족도 주셨습니다. 내려놓음의 은혜를 주신 주님께서 채움의 축복으로 함께 하심을 믿고 찬양의 기쁨 안에서 감사함으로 순종함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4대를 이어 믿음의 계보를 이루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면목제일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구원의 은혜를 받았고 신실하고 자상하신 임운택 목사님께 세례 받고, 무한 긍정의 놀라운 힘을 가진 멋진 남편 정장진 장로를 만나는 축복을 받아 1981년 2월 21일 성심의 첫 커풀로 임운택 목사님의 주례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33년 후 큰아들 신권이와 초희가 장호철 담임목사님의 주례로 성심교회에서 믿음의 복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세상에서 가장 보배롭고 귀한 손자 하민이를 축복의 선물로 받아 하민이를 통하여 믿음의 계보가 4대로 흐르게 하심이 가장 큰 축복의 은혜입니다. 신임순 권사(정규오 집사)로부터 시작된 믿음의 계보가 언제까지고 이어져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의 행복을 이 땅에 이루어가는 데 귀하게 사용되길 일평생 기도합니다. 성도님들의 가정에서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축복이 언제나 가득하시길 성심교회의 동역자로서 언제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어디서나 당당하게 걷게 하소서

편집부 최영은 성도

주여, 주님이 저의 아버지 되시니
제게 부족함이 없나이다.

때때로 주님이 아버지 되심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세상과 싸울 때, 주님께 의지하지 못하고 저의 힘으로 하려는 어리석은 일이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이겼으니 자녀된 저도 세상을 이기게 해주실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두려워 할 때가 있습니다.

그 때마다 저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를 푸른 풀밭으로, 쉼 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을 믿게 해 주시옵소서. 태초 전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은 언제나 저와 함께라는 것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하심입니다. 주님의 크고 놀라운 오른팔로 지키실 줄 믿습니다. 담대함으로 세상을 이기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2016년도 상반기 평신도 훈련 수료자 명단 (3월 1일 ~ 8월 31일)



행복한삶 훈련

김달웅, 김 옥, 김수경, 임지훈, 김정은, 김진성, 김춘실, 김현숙, 류은희, 문석훈, 서서희, 임현용, 윤혜선, 이상호, 최영은, 이승근, 임효원, 장민숙, 조혜진, 최정수, 최현희, 이승희, 김 석, 이종금



큐티학교

고효정, 김양주, 김진태, 김초희, 양승례, 유순화, 이주현, 임화지, 정신권, 정혜옥



찬양학교

김성철, 이근엽, 김월명, 조미정, 이경희A



전도학교

김익실, 정상현, 고순덕, 이동환, 서지수, 차선위, 이한철, 조미옥, 최혜영, 조정아, 원만식, 서태희, 이승철, 박은복, 유영수, 김난수, 이은상, 허효정, 이지영B



새가족 수료식

강길현, 김준석, 박설희, 유민지, 이광민, 김은혜, 정혜숙B, 신지혜, 최지현, 한은혜, 조성일, 김보미, 박영자B

새 가족을 소개합니다 :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2016. 03 ~ 2016. 09

사랑하는 사람에게 줄수 있는 최고의 선물, **❤️수그리스도**

소중한 사람, 사랑하는 사람에게 생명이신 예수님을 선물해 주세요



2016년 09월 18일
정두연(정우주) 성도님



2016년 09월 18일
민경록, 정순희(예원) 성도님



2016년 08월 21일
양복성 성도님



2016년 08월 21
김정현 성도님



2016년 08월 14일
박영자B 성도님



2016년 08월 07일
김경례성도님



2016년 07월 10일
조성일, 김보미 성도님



2016년 6월 26일
백승용, 이재영, 백서영성도님



2016년 06월 26일
오초롱성도님



2016년 05월 29일
한은혜 성도님



2016년 05월 01일
최지현 성도님



2016년 05월 01일
신지혜 성도님



2016년 04월 24일
정혜숙B, 김광식성도님



2016년 04월 24일
이정은 성도님



2016년 03월 13일
이광민, 김은혜, 라온 성도님



2016년 03월 06일
유민지 성도님



2016년 03월 06일
양홍보성도님



2016년 03월 06일
김은경 성도님



2016년 03월 06일
강길현 성도님



척추 질환의 근본적 치료와 예방 방법은 없는가? II

(척추 디스크 질환의 원인과 치료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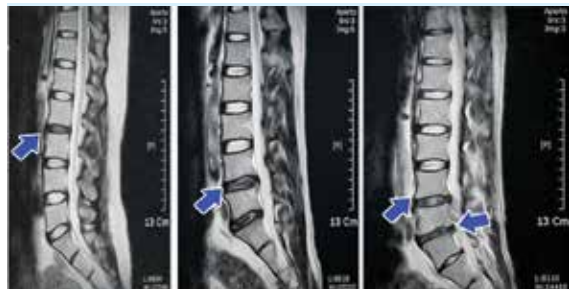
울림픽 병원 병원장 이재훈(정형외과 전문의)

매우 다양한 척추 디스크 질환의 원인

척추 디스크 질환의 원인은 매우 다양하지만 일반적으로 유전적, 가족적, 환경적 원인이 중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이러한 가능성이 높은 사람의 경우 조기 MRI 검사 등을 통해 척추 디스크 변성 여부를 확인 후 줄기 세포 치료를 시행하는 것도 고려할 방법이다. 줄기세포를 이용한 척추 디스크 치료는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2012년 미국에서 100명의 환자에게 시행한 척추 디스크 내 배양 줄기세포 주입 치료 후 3년 경과 시 현저한 통증 완화 결과 및 다른 합병증 발생 소견이 없었다는 결과 발표가 있었고 2010년 일본에서 2명의 60대 퇴행성 척추증 환자에 대한 비배양 줄기세포 치료시 2년간의 관찰시 현저한 통증 개선 효과 및 MRI 상 척추 디스크 내 수분 함량의 증가 소견을 보고 하는 등 최근 줄기 세포를 이용한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한 연구 및 결과에 대한 발표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에 따른 척추 질환의 치료는 매우 다양하게 이루어진다. 전통적인 척추 질환의 치료는 크게 수술하지 않는 보존적 치료와 수술적 치료 두 가지로 구분된다. 척추 질환의 보존적 치료는 물리 치료, 소염제 등의 약물 치료, 스트레칭 등의 근육 이



완 치료, 근력 강화 치료 등의 치료와 신경 주사 치료 및 최근 많이 시행 되는 신경 치료의 일종인 신경 성형술과 고주파 수핵 감압술 등의 시술 요법으로 이루어져 있다.

수술적 치료로는 디스크 제거술과 척추 분절 운동의 정지를 통한 통증 완화를 위한 척추 분절 고정술 등이 있다. 이러한 전통적 치료법은 통증의 경감을 통한 삶의 질 개선이 주 목표로 이미 진행된 퇴행성 변화를 되돌릴 수 있지 못하다. 따라서 이러한 치료로 진행되는 척추의 퇴행성 변화를 막을 수는 없다. 결론적으로 이러한 전통적 치료 방법은 근본적인 치료가 불가능하며 치료 후 후유증 발생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치료의 만족도가 현저히 떨어지고 있다.



보다 근본적이고 완벽한 치료 방법은 없을까?

척추 질환의 치료에 대하여 보다 더 근본적이고 완벽한 치료 방법이 없을까? 보존적 치료나 수술적 치료 등의 기존의 전통적인 척추 질환의 치료 방법들은 아직 이러한 척추 질환의 예방이나 근본적 치료가 아닌 통증의 감소가 주된 목적이다. 그러나 최근 여러 연구 및 선구적 치료 사례를 통하여 척추 디스크 질환의 근본적인 치료로 줄기 세포를 이용한 척추 디스크 치료법이 많은 관심을 끌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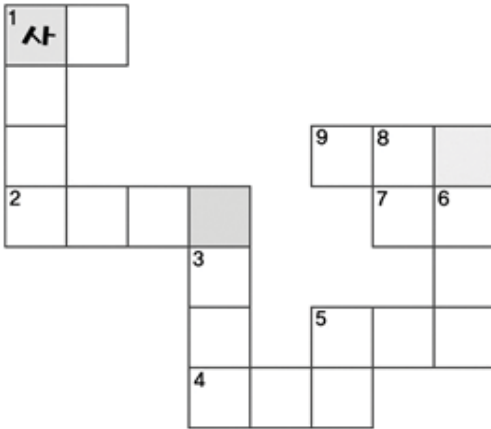
척추 디스크 치료로 관심을 갖고 있는 줄기 세포는 여러 줄기 세포 중 중간엽 성체 줄기 세포가 이용되며 주로 뼈 속의 골수나 피하 지방층의 지방층에 많이 존재 하고 있다. 척추 디스크에 대한 줄기세포 치료는 척추 디스크 연골 세포의 재생과 활성화, 세포외질의 활성화를 통한 척추 디스크 및 그 주변 구조의 재생, 복원, 재건을 근본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척추 디스크 재생 능력으로 인해 줄기 세포를 이용한 척추 디스크 치료는 척추 질환의 치료적 효과 뿐 아니라 아직까지 불가능했던 척추 질환의 초기 단계에 예방적 치료가 가능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각광을 받고 있다.

앞으로 유망한 치료법

2015년 현재까지 전 세계적으로 약 2,000 사례 정도의 줄기 세포를 이용한 척추 디스크 치료가 진행된 상태로 아직까지 부작용 사례는 없었으며 통증의 개선과 척추 디스크의 정상 디스크로의 재생 효과가 관찰 되고 있다. 줄기세포 치료를 이용한 척추 디스크 치료는 아직까지 불가능했던 척추 디스크의 재생, 복원, 세포의 활성화, 세포수의 증가에 따른 근본적 재생이 가능하다. 또한 척추 디스크에 대한 줄기 세포 치료는 척추의 퇴행성 질환이 진행되기 전 사전 예방이 가능하며 일부 척추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 가능성이 높은 환자군의 예방에 매우 유용한 치료법으로 전망된다.

[편집자 주 : 올림픽병원은 성심교회와의 협력 의료 기관으로서 우리 성심 교우들에게 건강 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와 더불어 의료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중거문 성경퍼즐



가로풀이

1.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00하라(마22:39)
2.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를 보내 멸망한다고 경고하자 회개하고 구원 받은 성(욥3:4~10)
4. 처음과 끝. 알파와 000(계1:8)
5. 마리아와 나사로의 누이(요11:1~2)
7. 죽은 사람의 살이 썩고 남은 뼈(창50:25)
9. 우리죄가 00갈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입니다(사1:18)

세로풀이

1. 엘리 엘리 라마 0000(막15:34)
3. 예수님을 보려고 뿔나무 위로 올라간 사람. 키가 작조(눅19:1~4)
5. 오순절 이 사람의 집 다락방에서 기도하던 모든 사람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조(행2:1~5, 신약성경 제2복음서의 저자)
6. 예수님이 못 박히신 언덕(마27:31~33)
8.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육지처럼 건넌 바다(행7:36, 출14:16)

지난호 정답

으	솔	레	멧		에	디	오	피	아
두		히		에		과		발	
셀	랍		에	바	다		미		
라			브		윗		가	바	다
	이	달	라				엘		브
알	디		다	냐	안				림
	엘	리					헤	르	문
도			바	알	하	문		호	
르	우	벤		패				보	
가				오				암	



성 함 :

연 락 처 :

위 성경퍼즐을 다 푸시고 제출하시면 추첨을 통하여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제출방법 : 편집부원을 만나면 직접 전달해 주세요.. 편집부원은 표지 뒷면을 참조하시면 됩니다.

예배 및 훈련

예배 및 훈련						
장년 공동체	주일 1 부 예배		주일 오전 9:00	본당예배실		
	주일 2 부 예배		주일 오전 11:00	본당예배실		
	주일 3 부 예배		주일 오후 1:00	본당예배실		
	주일 오후 예배		주일 오후 3:00	본당예배실		
	수요 저녁 예배		수요일 오후 7:30	본당예배실		
	금요 중보 기도		금요일 오후 9:30	본당예배실		
	새벽 기도회		매 일 오전 5:30	본당예배실		
청년 공동체	청년 1부 (20~27세)		주일 오후 1:00	본당예배실		
	청년 2부 (28세이상)		주일 오후 1:00	본당예배실		
교회 학교 공동체	축복의 땅 (1 ~ 4세)		주일 오전 10:00	영아부실		
	밀알의 땅 (5 ~ 7세)		주일 오전 11:00	유치부실		
	약속의땅 1부 (초1~3학년)		주일 오전 11:00	유년부실		
	약속의땅 2부 (초4~6학년)		주일 오전 10:50	초등부실		
	비전의땅 1부 (중1~3학년)		주일 오전 9:00	중등부실		
	비전의땅 2부 (고1~3학년)		주일 오전 11:00	고등부실		
영어 교회 학교	Joyful Tree		주일 오후 1:00	유치부실		
	What do you see?		주일 오후 1:00	유치부실		
	Who made the world?		주일 오후 1:00	유년부실		
	Jesus Story		주일 오후 1:00	초등부실		
	Dream & Vision		주일 오후 1:00	중등부실		
훈 련	새가족 5주 양육(5대 교리)		5주	제작 · 사역훈련		52주
	행복한 삶 훈련(교리)		10주			
	신앙 생활 훈련	큐티 학교	10주	성경 대학	성경일독학교	12주*2
		중보기도학교	10주		성경통독학교	12주
		찬양 학교	10주		성경리더 (순장)학교	10주
		전도 학교	10주			



버스(송파입구)
9403, 301, 302, 303, 360, 362
2412, 3215, 3217, 3314, 3413, 3415
한솔아파트 340, 363
임마순백화점 앞 3218, 3417, 3422



지하철
8호선 석촌역 하차 5번출구 방향
하에마트 골목에서 우회전

섬기는 이들

담임목사 장호철
원로목사 임운택
부목사 현성
여전도사 박양숙
교육강도사 조현기
교육전도사 서요한 / 서현
특수파트목사 최수명
사무장로 김병기 / 성경화 / 정장진
이규철 / 이완신 / 강재원
조성수 / 정해광 / 심항기
이서권 / 송태문 / 유광호
정원태

은퇴장로 황의용
국내선교 권포중앙교회
사지원교회
남도햇빛교회
안골지구촌교회

예가원
참빛교회
행복한교회
용포교회
동해조원교회
개혁신보사
합동신학교
샘물호스피스
신주이사회
여명학교
아틸락
은혜와 평강교회
부여충화제일
C채널방송
스벳미라교회
예손의 집
부친은혜교회
익산사함교회
형통한교회
문거교회
예담교회
성은교회
평생돌봄
개혁주의성경연구소

해외선교 이문석 이근도
이상록 서한영
이귀태 전유성
장정래 양재길
성기순 정재순
박용빈 전은성
황중기 김무선
이정규 정국보
전창길 조운일
신바나바 이정수
정복진 (자비랑)

가르치는 교회 | 전파하는 교회 | 치유하는 교회 | 차세대 지도자를 세우는 교회
모이는 교회 | 헤어지는 교회 | 파송하는 교회



「성심과 함께하는 삶」에서는 신앙생활의 간증원고를 기다립니다.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합니다. (편집부장 안영화 집사 e89cokr@naver.com)